

2023년 글로벌 M&A 트렌드 산업별 전망

March 2023

삼일PwC경영연구원

Agenda

Executive Summary	3
2022 M&A 시장 Review	14
산업별 M&A Trend 및 2023 Outlook	23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3 Outlook

Executive Summary



2022년 M&A 시장 점검: Overall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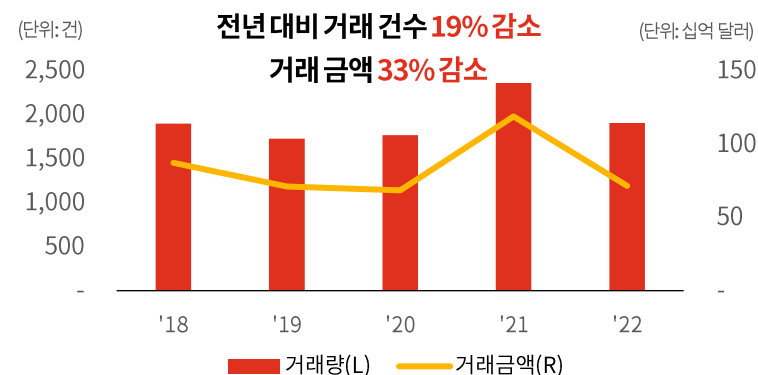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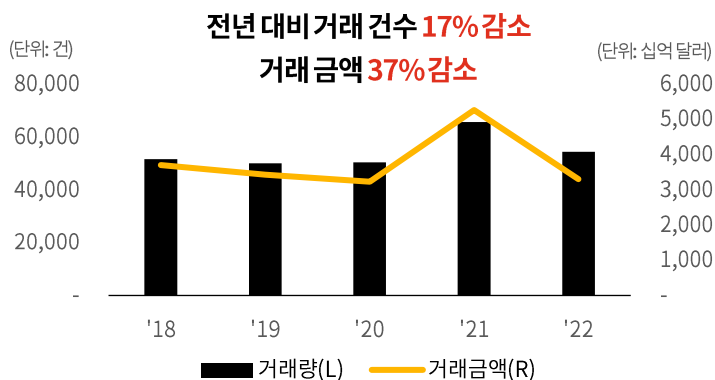
시장 규모
(’22년 기준)

거래 금액 3.3조 달러 (한화 3,960조 원)
거래 건수 54,45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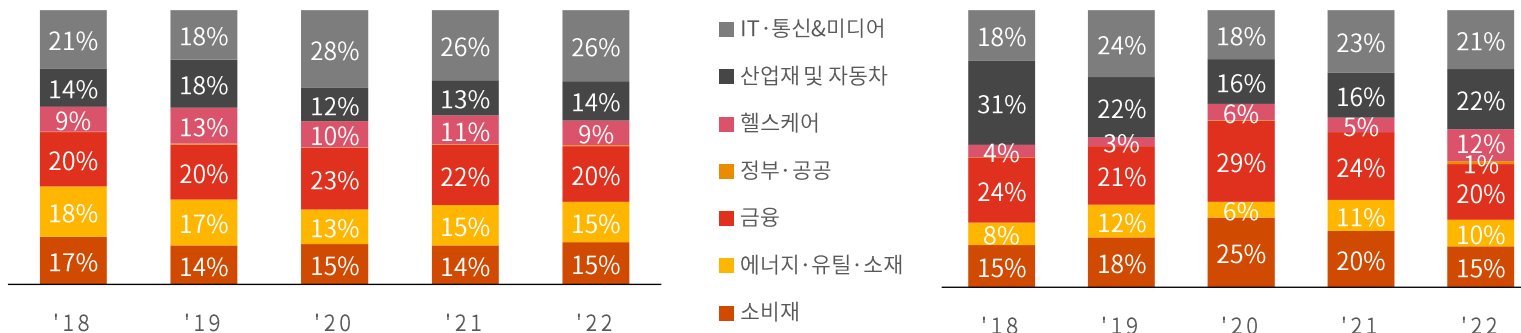
국내

거래 금액 710억 달러 (한화 92조 원)
거래 건수 1,905건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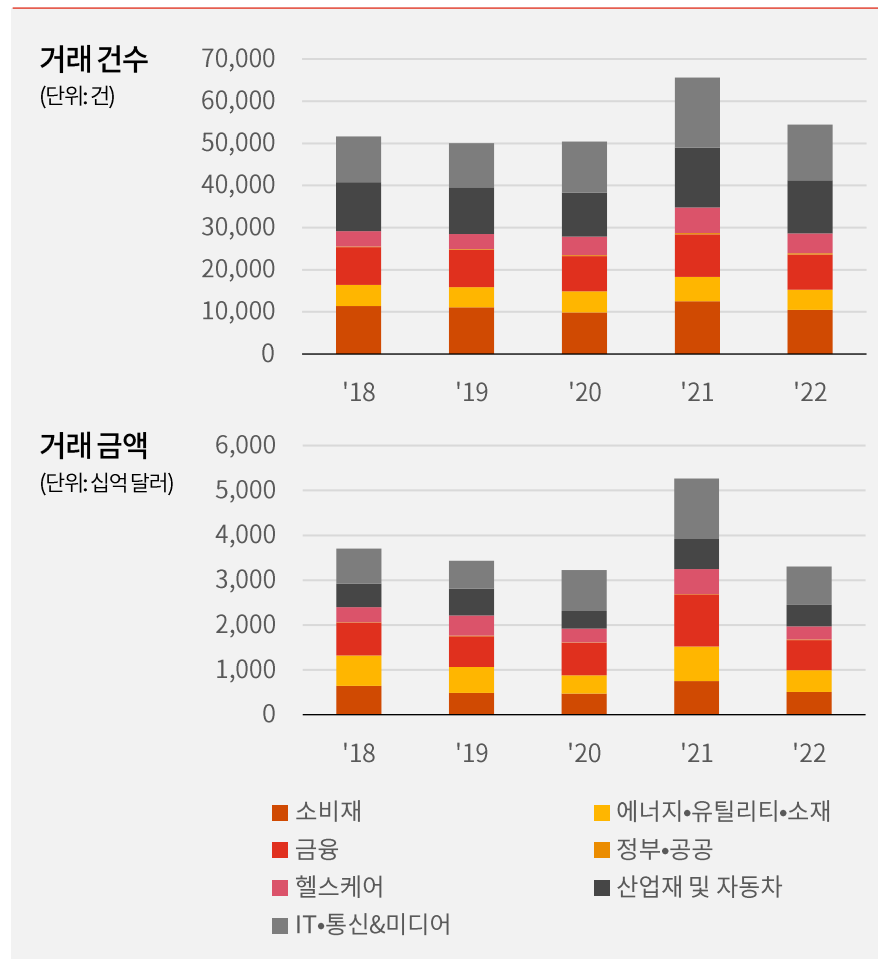
섹터비중 (총 거래금액 대비)



2022년 M&A 시장 점검: 글로벌

- '22년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 건수 54,452건(-17% YoY), 금액 3.3조 달러(-37% YoY)를 기록. '21년 대비 크게 감소한 실적이나, 팬데믹 이전('18~'19년 평균)과 비교시에는 거래 건수 7% 증가, 금액 8%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음
- '21년은 유레 없는 저금리 상황에서 M&A가 호황을 이뤘으나, '22년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 냉각
- COVID-19로 전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IT 부문에 대한 관심 집중
 - ✓ IT·통신 & 미디어 산업은 '22년 M&A 거래 금액 8,560억 달러로, 전체 M&A 시장 내 26%의 비중 차지. '20년 이후 3년 연속 M&A 시장 내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8~'19년 당시 비중(전체 M&A 거래 금액 중 20%)과 비교시 팬데믹 이후 IT 업종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
 - ✓ 금융은 메가딜(50억 달러 초과) 감소로 전년비 거래 건수와 금액이 각각 17%, 42% 감소하였으나, 전체 시장 내 20%를 차지하며 2위 유지(금액 기준)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M&A 시장 점검: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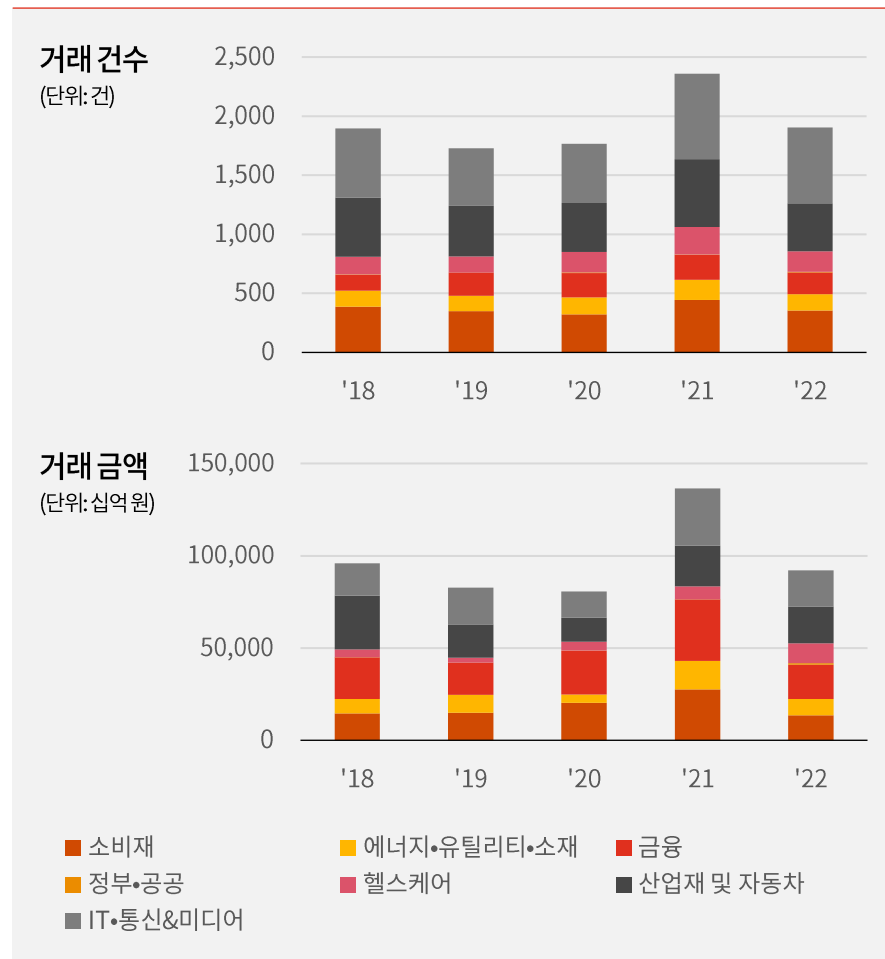
- '22년 국내 M&A 시장은 거래 건수 1,905건(-19% YoY), 거래 금액 92조 원(-33% YoY)으로 글로벌 시장의 감소폭(각각 -17%, -37%)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팬데믹 이전('18~'19년 평균)과 비교시에는 거래 건수, 금액 각각 5%, 3% 증가하며 소폭 상승
- 업종별로는 소비재(-52% YoY), 금융(-44.% YoY) 등의 거래 금액 감소폭이 큰 가운데, 산업재 및 자동차(-9% YoY)는 선방. 헬스케어는 큰 폭으로 증가(+49% YoY)
 - ✓ 헬스케어는 메가딜(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 약 2조 8천억)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글로벌과 비교 시 국내 시장의 특징은

전체 M&A에서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글로벌 14% vs. 국내 22%. '22년 거래금액 기준)인데, 이는 국내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GDP 중 제조업 비중*: 국내 27.9% vs 미국 10.9%, 독일 19.1%, 일본 20.7%) COVID-19 이후 제조업 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영역에서 M&A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내는 '21년 기준, 그외 국가는 '19년 기준

국내 M&A 거래 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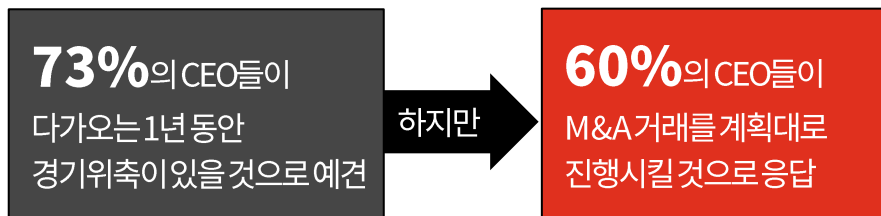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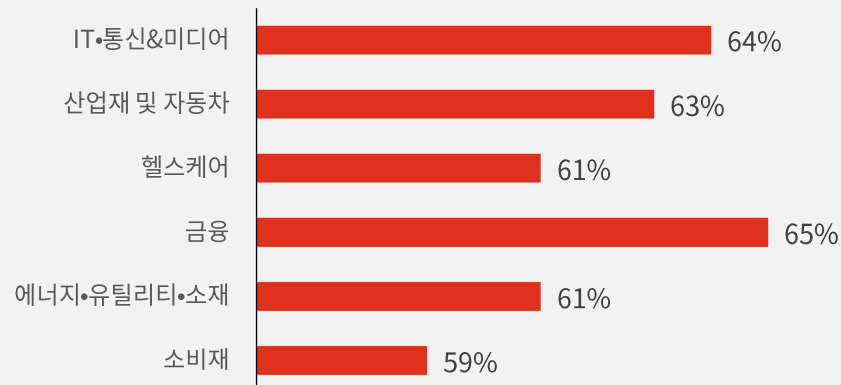
2023년 M&A Outlook: Overall

- '23년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또한, '22년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감, 자국우선주의 등도 지속되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M&A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둔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시점이 매력적 Valuation에 따른 기업인수 최적 기회가 도래하는 시기.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M&A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PwC의 26th 연간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둔화기에도 불구하고 M&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음. 기업 리더들의 73%가 세계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60%의 경영자들이 '23년에도 M&A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응답
- 경기둔화 시기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단기적)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Cash flow를 창출해내는 비즈니스에 관심
 - (중장기적) 메가 트렌드에 맞는 비즈니스로의 관심 재차 높아질 전망 (디지털화, ESG, 탈세계화)
- '23년 M&A거래의 주요 테마는 ① 디지털전환 ② 포트폴리오 재정비 및 최적화 ③ 공급망 & 인력확보 ④ ESG ⑤ 구조조정.
관심업종은 ① 소재/부품/장비 ② ESG(2차 전지, 전기차, 리사이클링, 신재생에너지 등) ③ 바이오 헬스케어(건기식, API, 의료기기 등)

PwC's 26th Annual Global CEO Survey



M&A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응답한 CEO 비중: 업종별



Sources: PwC

2023년 M&A Outlook: 투자 주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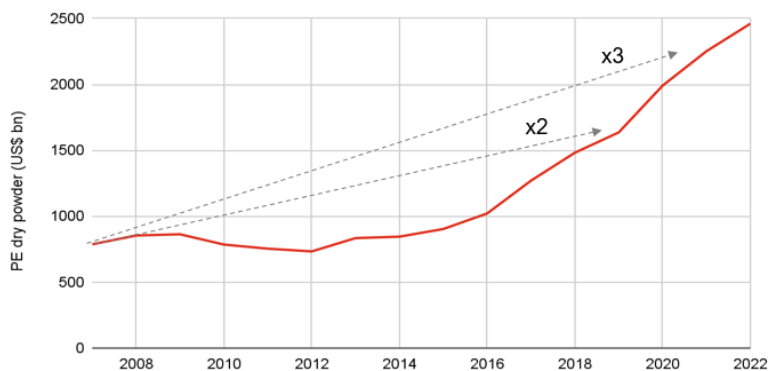
기업

- 금리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
- 기업 분할 및 사업부 매각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현금이 풍부하고, 공격적 성장 목표를 가진 기업에게는 많은 M&A 기회가 주어질 것

사모펀드 (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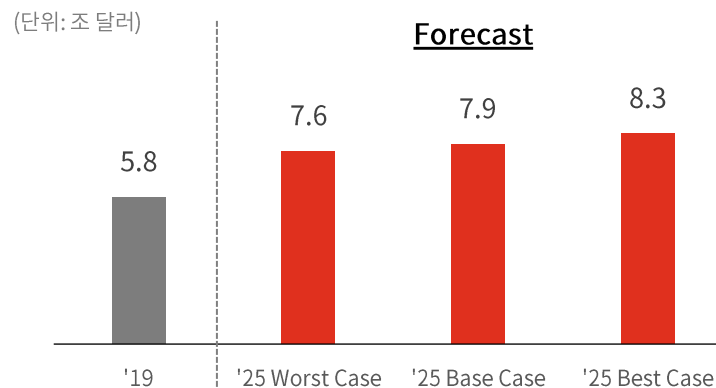
- 사모펀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2년 M&A 거래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
- PE의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이 약 2.4조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높은 이자율과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투자 활동이 다소 둔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E들은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을 것이며, 이미 일부 대형 PE들은 신용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성공
- '23년에도 PE는 신규 거래를 검토하고 기존 투자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규 투자 및 매각이 지속될 전망

글로벌 PE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 추이



Sources: Preqin and PwC analysis

글로벌 PE 운용자산 전망치



2023년 M&A Outlook: 투자 주체별, 계속

SPAC

- '22년 SPAC(특수목적인수회사) IPO는 총 85개, 약 120억 달러의 자금 모집. 이는 '21년 600개 이상, 1,44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비하여 급격히 감소한 수치
- 저조한 IPO 실적과 PIPE(공공자본에 대한 민간투자)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록적인 상환률, SPAC 합병 감소, 기 합의된 SPAC 거래 미이행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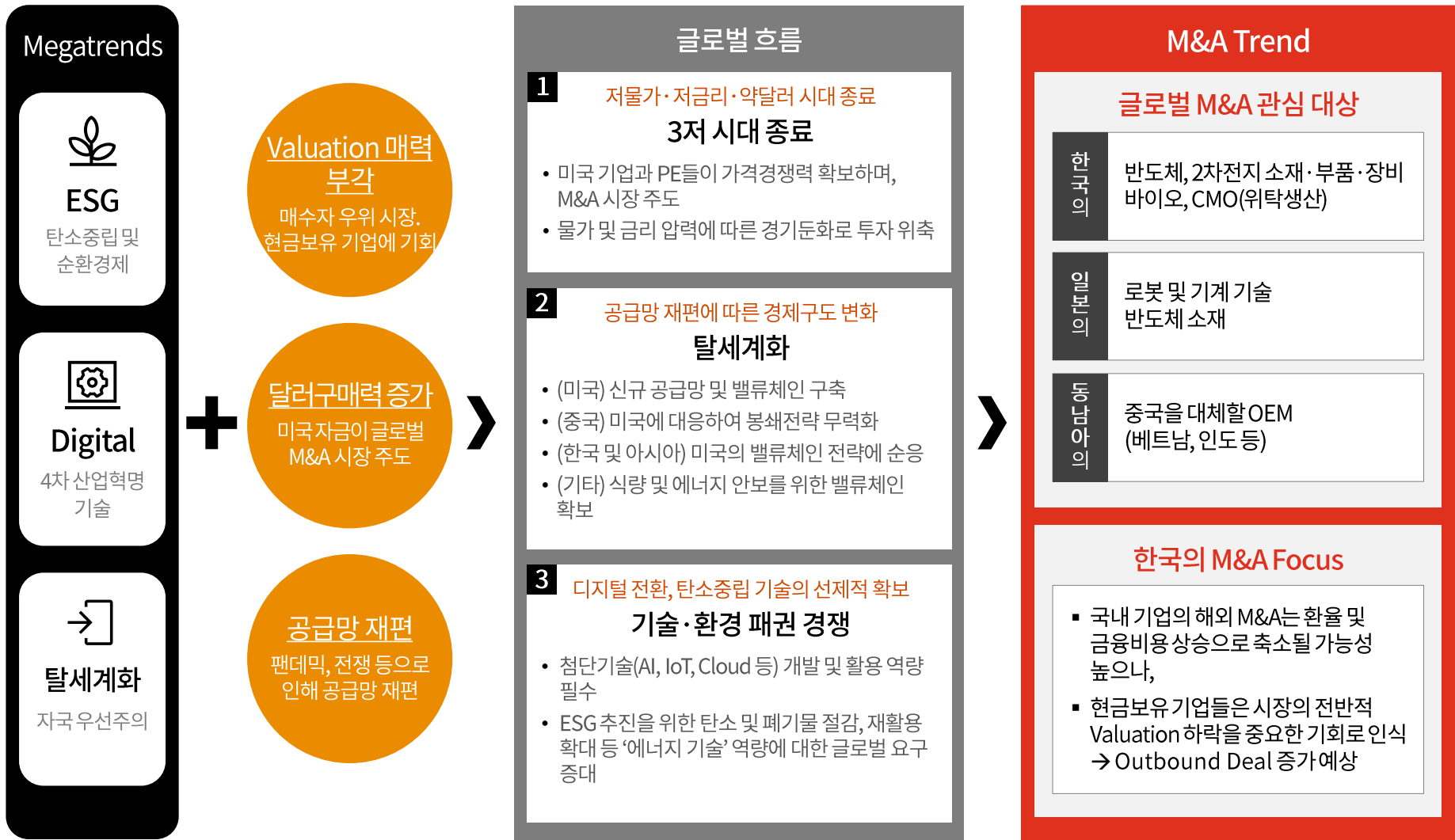
신용펀드 & 민간시장 자본

- 은행이 리스크가 높은 영역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한함에 따라, 신용펀드 및 민간자본(Credit Fund & Private Markets Capital)이 은행의 영역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
- 신용펀드 및 민간자본은 중간 시장(Mid-Market)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들이 제공하는 자금은,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핵심축이 될 가능성 높음

벤처캐피탈

-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고 Value를 재평가함에 따라, 신생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다만 이러한 환경은 기업 및 PE에게 다양한 인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유망한 부문은 기후관련 기술
 -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기후 기술에 대한 VC 투자 또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영역대비 양호한 수준
 - 여전히 VC자금의 1/4 이상이 기후 기술에 집중되고 있음 (PwC: State of Climate Tech 2022)

2023년 M&A Outlook: Trend 분석



2023년 M&A Outlook: 업종별 - 글로벌

업종	요약	상세
소비재	'23년에는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비즈니스 변혁에 초점을 맞춘 M&A가 많아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들은 매크로 반등을 기회 삼아, 기업전략 실행을 위해 M&A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자본분배 측면에서 인수·매각 전략이 활용 될 것 소비심리 하락 및 소비자 지출감소는 기업 Valuation의 재조정을 일으키며, 이는 잠재적 M&A 기회를 창출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중심으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산업의 근본적 변화는 경영자와 투자자들에게 우선적 고려사항 M&A 거래자들은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의 안정성에 집중할 것 에너지, 유틸리티, 자원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M&A의 원동력으로 작용
금융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으로 금융산업 M&A가 이루어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들의 지속적 요구로, ESG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 의사 결정에도 큰 비중 차지 매크로와 지정학적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진행 소비자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들은 디지털화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설정
헬스케어	'23년 헬스케어 M&A 시장 반등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자본 재분배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전략적 영역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이어질 것 성장 목표치와 악몽 생산 현황의 차이가, 향후 M&A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 헬스케어 기업들 사이에 합병 및 시장점유율 강화 기회가 열려 있는 동시에, 투매적 성격의 M&A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산업재 및 자동차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기존 산업 매각이 M&A의 중심이 될 것. 또한 Tech과 ESG 분야 관련된 선택적 M&A가 이루어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위해 비핵심 자산들의 매각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를 진행할 것 기술과 자원 채굴 영역의 융합이 가속화. 산업재 및 자동차 기업들의 기술, 인력, 자원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M&A 또한 활성화
IT·통신 & 미디어	각 사업에 대한 적절한 자본 할당과 전략적 M&A가 주요 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들은 디지털 혁명에 맞춰서 지속적인 혁신과 기업 가치 재구성을 진행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다양한 인수 기회들을 얻을 것이며, M&A 시장에서 P2P 거래도 늘어날 것 매크로 환경과 규제 불확실성이 안전 자산 위주의 투자 환경을 조성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디지털화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

Sources: PwC analysis

2023년 M&A Outlook: 업종별 - 국내

업종	요약	상세
소비재	경기둔화기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가치 및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심 자산매각을 통해 자금 확보하고, 온라인·간편식·친환경에 대한 투자 온라인 채널로의 전환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특색이 뚜렷한 오프라인 채널 부상 식자재 부문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 부각. 이를 위해 현지 농장·공장 인수 호텔·레저투자심리는 미회복 상태이나, 낮아진 Valuation으로 지금이 M&A 적기가 될 수 있음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자원확보, 에너지 대전환 및 ESG에 대한 투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친환경 에너지로 자본배분을 위해 비핵심 자산매각, 특히 고탄소배출 사업부 축소 핵심 금속광물(특히 배터리 관련)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및 관련 업체 적극적 M&A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각국 정부·기업 간 전략적 제휴 증가.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예견되나, 당분간은 화석연료에 대한 중요성 부각
금융	핀테크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 지속. 경기둔화에 따라 NPL 및 비핵심 자산매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과 플랫폼,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경기둔화기 신용리스크 증가에 따라 NPL 매각 증가 전망. 또한, 금융권이 성장보다 내실경영에 집중함에 따라, 비핵심 자산매각 및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인수 증가 은행 기반 금융지주는 풍부한 자금 여력을 바탕으로 M&A의 주역으로 부상. 특히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금융사 M&A를 지속 검토할 것
헬스케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헬스케어 기업들의 Valuation이 하락한 시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M&A를 확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의존도 재평가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M&A 활발 예상 해외, 특히 미국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및 JV 설립 증가 CMO 및 CDO에 대한 관심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생산공장 설립 및 현지 업체 협업 필요 경기둔화기 진입에 따라 바이오·원격의료·헬스케어 등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Target 회사의 낮아진 valuation을 바탕으로 제약 및 대기업들의 인수 니즈 증가

2023년 M&A Outlook: 업종별 - 국내, 계속

업종	요약	상세
산업재 및 자동차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Tech, 공급망 확보, 기후 변화 대응한 EGS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집중.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기업들의 구조조정형 or 합병추진형 M&A 증가 예상 공급망 안정화(특히 배터리)를 위한 관련 업체 인수 및 전략적 제휴 증가 자동화·디지털·ESG 관련 기술 투자
IT·통신 & 미디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기업의 성장 전략에 중요한 디지털 전환(DX), 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필수 부품·원료 관련 M&A 증가 경기둔화기에도 불구하고 AI·빅데이터·클라우드·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디지털화·커넥티브 역량 확보를 위한 이종 업종간 제휴 강화 엔터의 경우, 경기둔화로 실적이 저하된 기업들 매출 증가 & 콘텐츠 확보를 위한 플랫폼 업체들의 진출 가속화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3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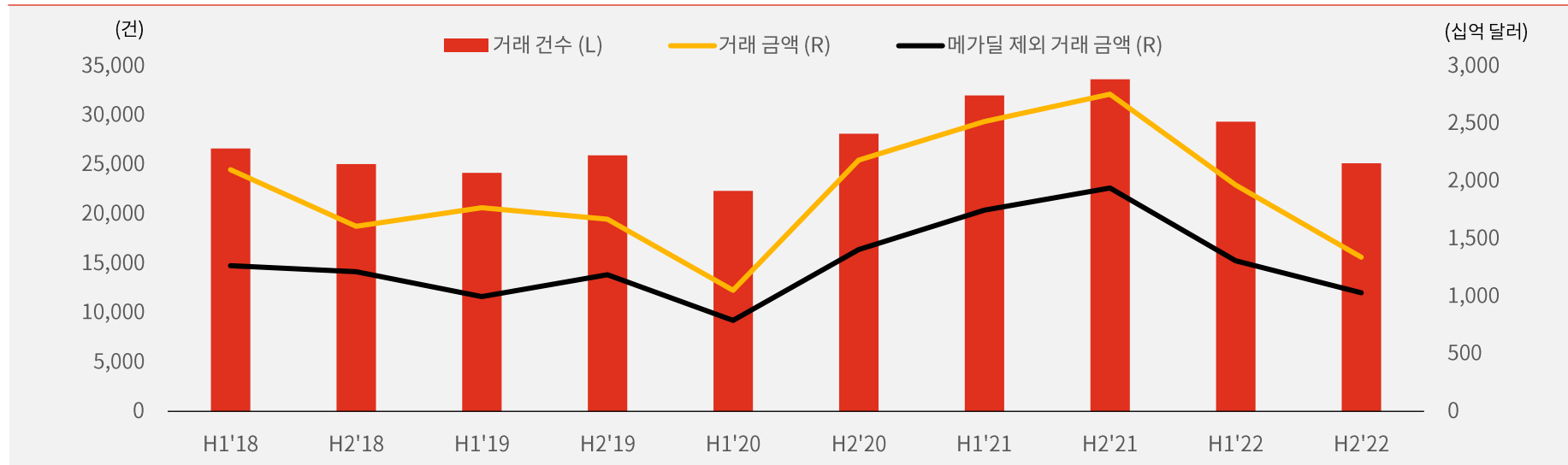
2022 M&A 시장 Review



2022년 글로벌 M&A 실적: 시장 전체

- '22년 글로벌 M&A 거래 건수는 54,452건(-17% YoY), 금액은 3.3조 달러(-37% YoY)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부진
- '21년은 저금리, 증시호황,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10년 이후 최대 M&A 실적을 기록했던 반면, '22년에는 금리인상으로 인수금융 금리 부담 확대, 자산시장 냉각으로 투자 위축, 매크로 불확실성 등이 더해지며 전년 대비 M&A 거래 축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다만, 팬데믹 이전 및 '20년의 M&A 실적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이었음. '22년 글로벌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팬데믹 이전('18~'19년 평균치) 대비 각각 +7% 증가, -8% 감소했고, '20년 대비 각각 +8% 증가, +2% 증가해 소폭 상회
- '22년 초에는 전년도의 M&A 시장 호황세가 이어졌으나, 다음 분기부터 거래 감소세가 지속. 특히 '22년 하반기 기준 M&A 거래 건수(-25% YoY)와 금액(-51% YoY)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상반기 건수(-8% YoY)와 금액(-22% YoY) 대비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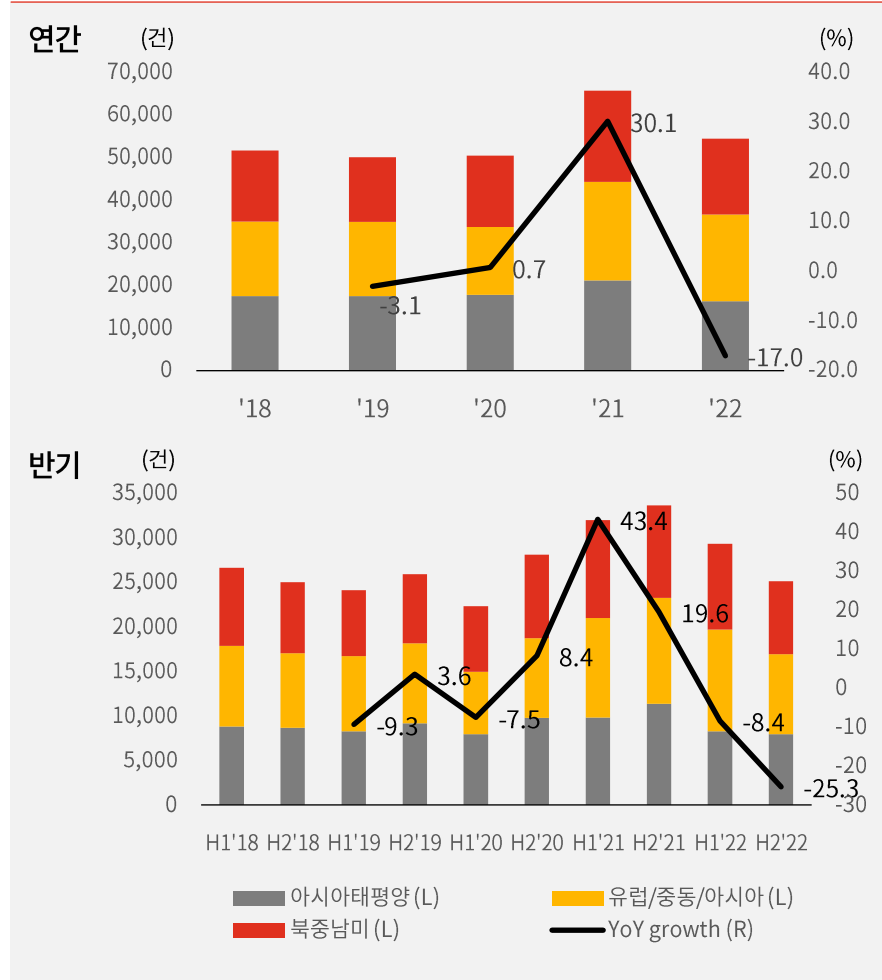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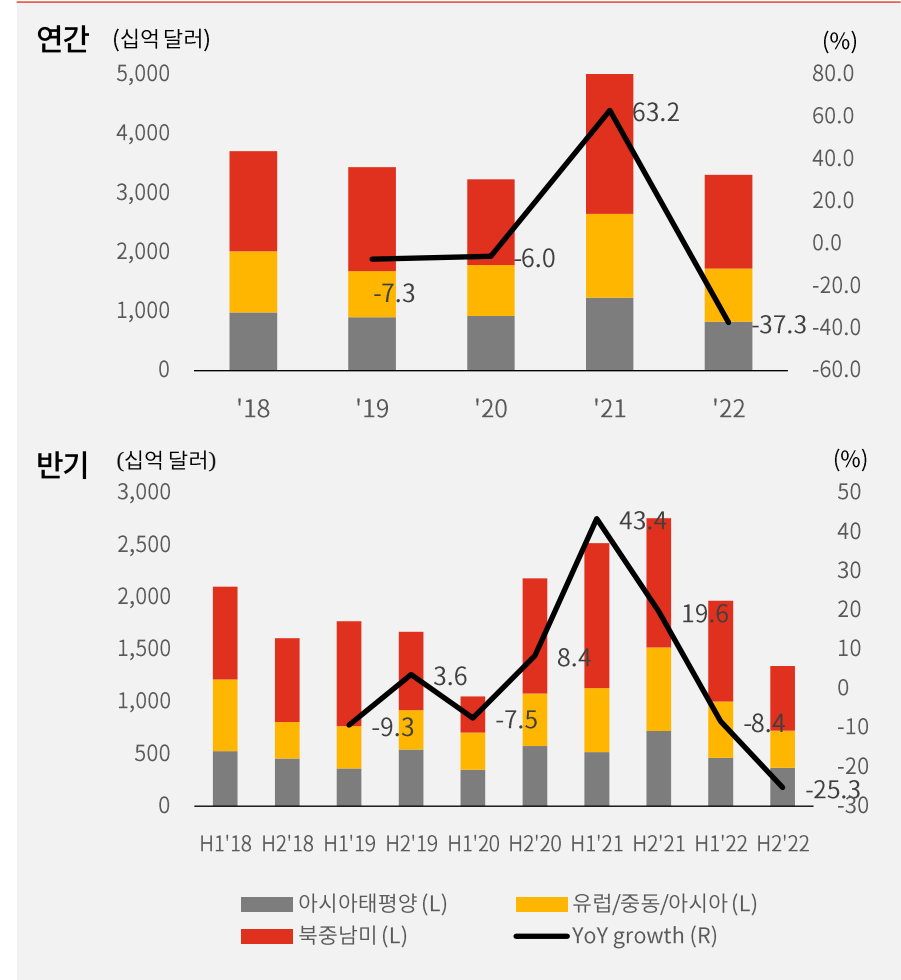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글로벌 M&A 실적: 시장 전체, 계속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성장률 추이



글로벌 M&A 거래 금액 및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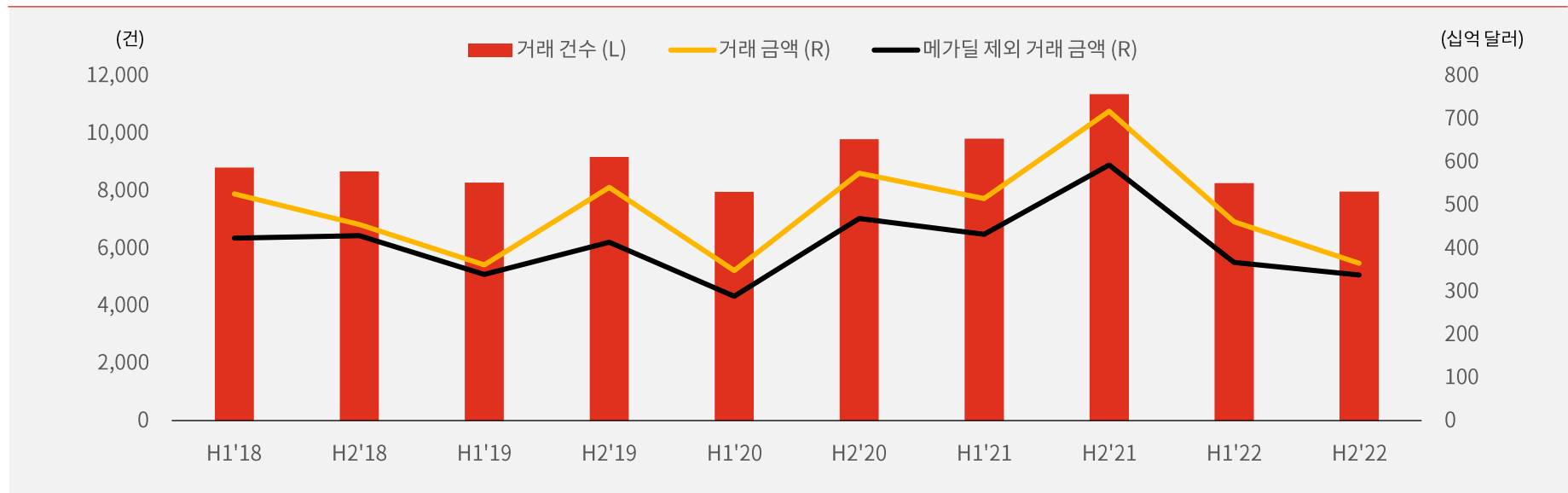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글로벌 M&A 실적: 지역별 - 아시아태평양

- '22년 아태지역의 연간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3%, 33% 감소. 글로벌 시장 감소율(각각- 17%, -37%) 대비 거래 건수는 부진, 금액 기준으로는 선방. 글로벌 시장 내 아태지역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30%, 25%으로 전년비 소폭 변동 ('21년 32%, 23%)
- 아태지역의 '22년 하반기 M&A 거래 건수(-30% YoY)와 금액(-49% YoY)은 상반기 건수(-16% YoY), 금액(-10% YoY) 대비 급감하며, 하반기 위축이 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였음
- 가장 부진했던 지역은 중국으로, '22년 거래 건수와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46%, 33% 감소. 중국 내 M&A 거래는 자국 내 팬데믹 이슈와 수출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됨
-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중국을 넘어 인도, 일본,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관심을 갖고 투자기회를 노리고 있음.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인도로, M&A 거래 금액 기준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며 일본과 한국을 넘어섬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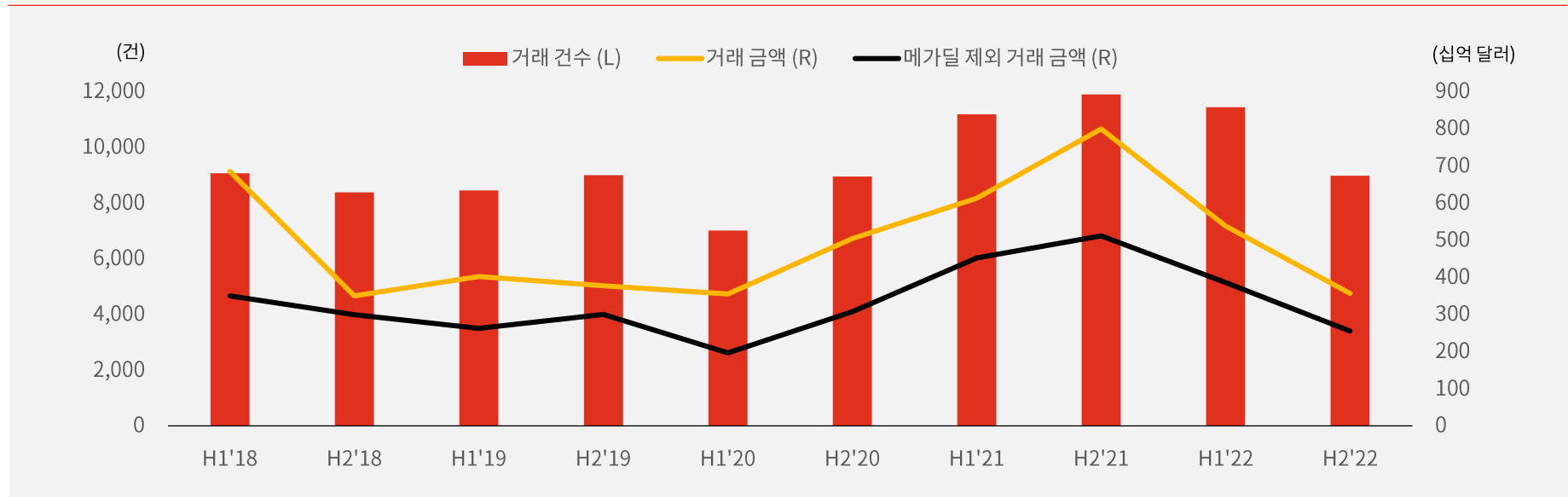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글로벌 M&A 실적: 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

- '22년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의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2%, 36% 감소. 거래 건수 및 금액 모두 글로벌 감소율(-17%, -37%) 대비 낮아 상대적으로 M&A 시장 방어력이 가장 높았던 지역으로 분석됨
- EMEA 지역의 경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테크 및 소프트웨어 산업 부문의 M&A 강세에 힘입어 타 지역 대비 선방('22년 M&A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율: EMEA -12% > 미주 -17% > 아태 -23%). '22년 약 2만여 건의 딜이 실행되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시기인 '18년, '19년 대비 17% 증가한 규모
- 특히 '22년 상반기 기준 M&A 건수 YoY 증감율은 유일하게 양(+)의 수치인 +2%를 기록했으며, 하반기 증감율은 -25%로 악화되며 상고하저의 흐름에 동참. 거래 금액 기준으로도 상반기 -12% YoY, 하반기 -55% YoY를 기록하며 감소폭이 확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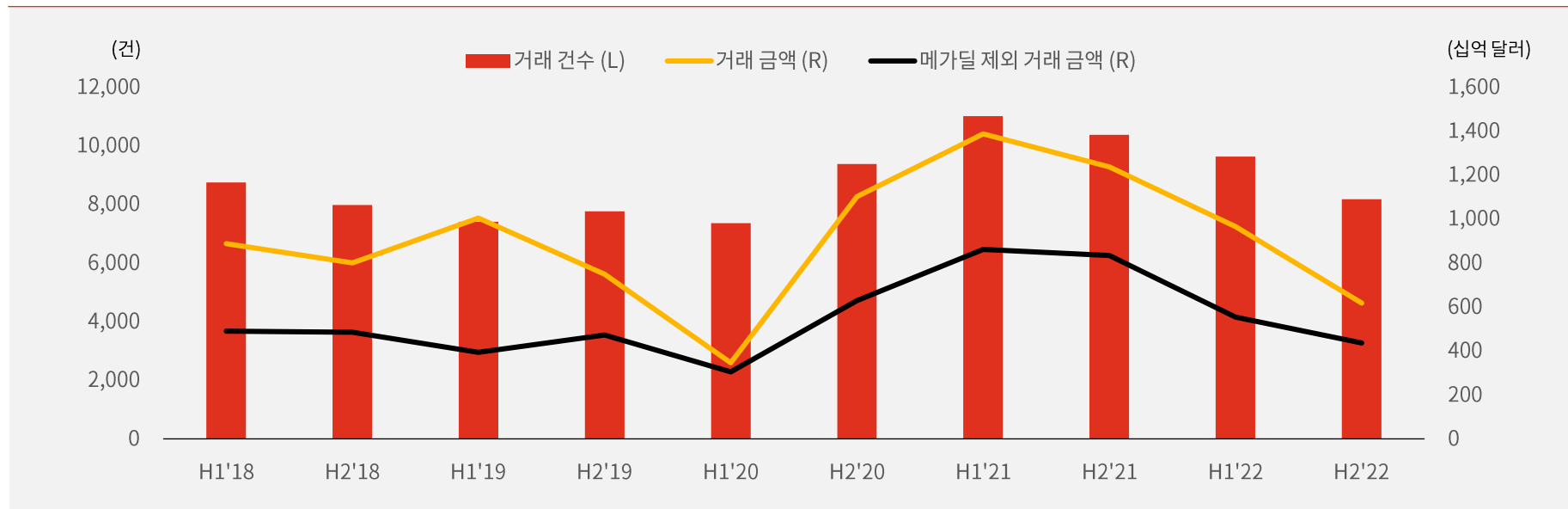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글로벌 M&A 실적: 지역별 - 미주

- '22년 북중남미 지역의 연간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 40% 감소. 글로벌 감소율(-17%, -37%)과 유사한 수준으로 M&A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매크로 불확실성, 규제 및 지정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판단됨
- 미주 지역의 경우 M&A 거래 건수보다는 금액이 특히 저조했는데, 이는 미국 내 메가딜(50억 달러 초과) 건수가 '21년 81건, '22년 42건을 기록하며 거의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
- 미주는 타 지역 대비 메가딜의 영향도가 높은 지역. 총 거래 금액 내 메가딜 비중은 미주(40%), 유럽·중동·아프리카(33%), 아시아태평양(16%) 순('18~'22년 평균)이며, 이에 따라 타 지역 대비 M&A 거래 금액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미주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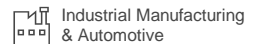
2022년 글로벌 M&A 거래 Top 10: 미국, 테크 섹터 강세

- 미국 내 메가딜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상위 10개 글로벌 M&A 딜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에서 실행. Top 10 거래 중 인수기업 6개사, 피인수기업 5개사가 미국 기업이었음
- 산업의 경우 '테크' 섹터가 강세를 보임. '22년 M&A 거래 금액 기준 1위, 2위, 5위 딜이 모두 해당 섹터에서 실행

Top 10 Global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Activision Blizzard Inc	 Microsoft Corp	Corporate		75.6 
2	 VMware Inc	 Broadcom Inc	Corporate		68.1 
3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 Ltd	 HDFC Bank Ltd	Corporate		60.4 
4	 Atlantia SpA	 Schemaquarantatre SpA	PE		52.1 
5	 Twitter Inc	 X Holdings I Inc	PE		41.3 
6	 Alpha Dhabi Holding PJSC	 International Holdings Co PJSC	Corporate		33.3 
7	 Horizon Therapeutics PLC	 Amgen Inc	Corporate		27.1 
8	 Mileway BV	 Blackstone & Investor Group	PE		23.7 
9	 Duke Realty Corp	 Prologis Inc	Corporate		21.7 
10	 Firmenich International SA	 Koninklijke DSM NV	Corporate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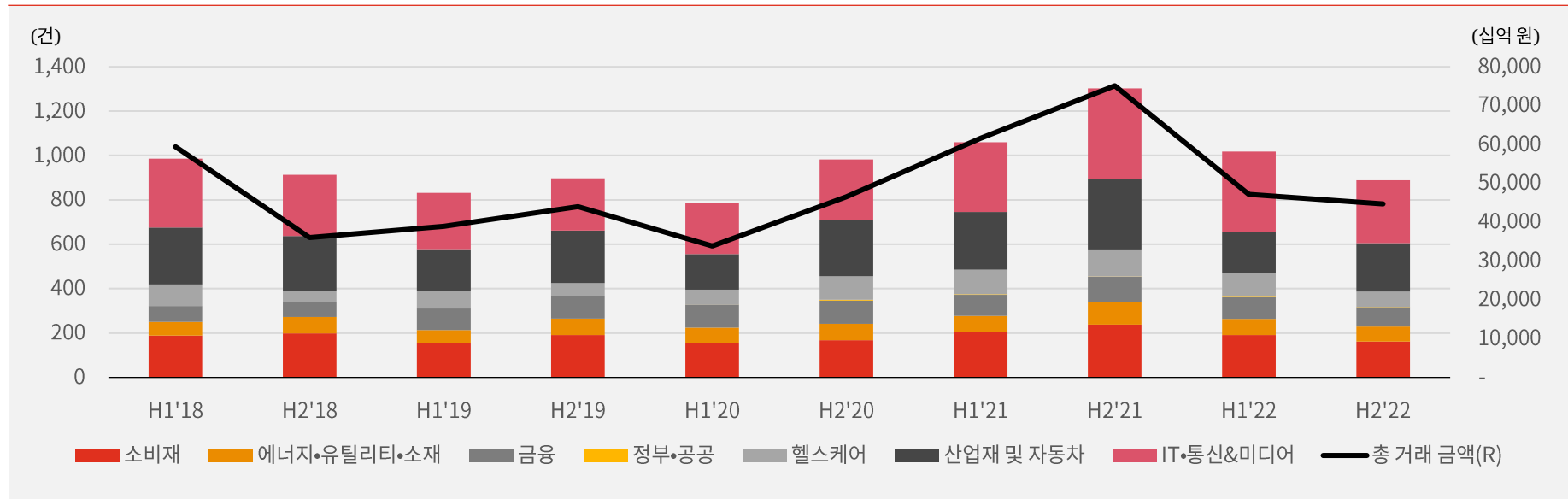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2년 국내 M&A 실적

- '22년 국내 M&A 거래 건수는 1,905건(-19% YoY), 거래 금액은 92조 원(-33% YoY)을 기록하며, '21년 대비 부진한 실적. 특히 '22년 하반기 M&A 거래 건수(-32% YoY)와 금액(-40% YoY)은 상반기 거래 건수(-4% YoY), 금액(-23%)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며 시장의 위축세가 강화되는 양상
- 다만, 팬데믹 이전인 '18~'19년 대비로는 양호한 실적. '18~'19년 평균치 대비 '22년 M&A 거래 건수는 5% 증가, 금액은 3% 증가
- 섹터별로는 소비재 부문이 M&A 거래 건수 353건(-20% YoY), 금액 13조 원(-52%)을 기록해 전 섹터 중 가장 크게 감소. 헬스케어는 M&A 거래 건수 175건(-25%), 금액 11조 원(+49%)을 기록하며, 금액 기준 유일하게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는 이례적으로 대규모였던 삼성 바이오에피스 딜의 영향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됨

국내 시장 M&A 거래 규모 및 금액 추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2년 국내 M&A 거래 Top 10: EUR 산업 강세

- '22년 국내 M&A 시장은 하반기 급격히 위축되면서, 기존에 PE가 주도하던 빅딜 건수가 감소
- 최대 금액 M&A 거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 딜로, 약 2조 7,800억 원 규모
- Top 10 딜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은 EUR(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로, 3위 SKC, 4위 포스코에너지, 5위 LS니꼬동, 8위 SK온 딜이 해당

Top 10 Deals in South Korea,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m)	
1	 Samsung Bioepis Co.	 Samsung Biologics Co.	Corporate	Biotechnology	2,300	
2	 Ssangyong C&E Co.	 Colter Capital, Hahn & Company	PE	Cement	1,502	
3	 SKC	 Hahn & Company	PE	Chemicals	1,270	
4	 POSCO Energy	 POSCO International	Corporate	Energy	911	
5	 LS-Nikko Copper Inc.	 LS Corp.	Corporate	Mining	732	
6	 TmaxSoft Co.	 SkyLake Investment Co.	PE	Computer Software	669	
7	 Hanwha Defense	 Hanwha Aerospace Co.	Corporate	Defence	654	
8	 SK on Co.	 MBK Partners Inc., Korea Investment PE, EastBridge Partners, Stella Private Equity	PE	Batteries and Power supplies	627	
9	 Zinus Co.	 Hyundai Department Store Co.	Corporate	Consumer	623	
10	 Hankuk Glass Industries Co.	 LX International Corporation	Corporate	Automotive, Construction	488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3 Outlook

산업별 M&A Trend 및 2023 Outloo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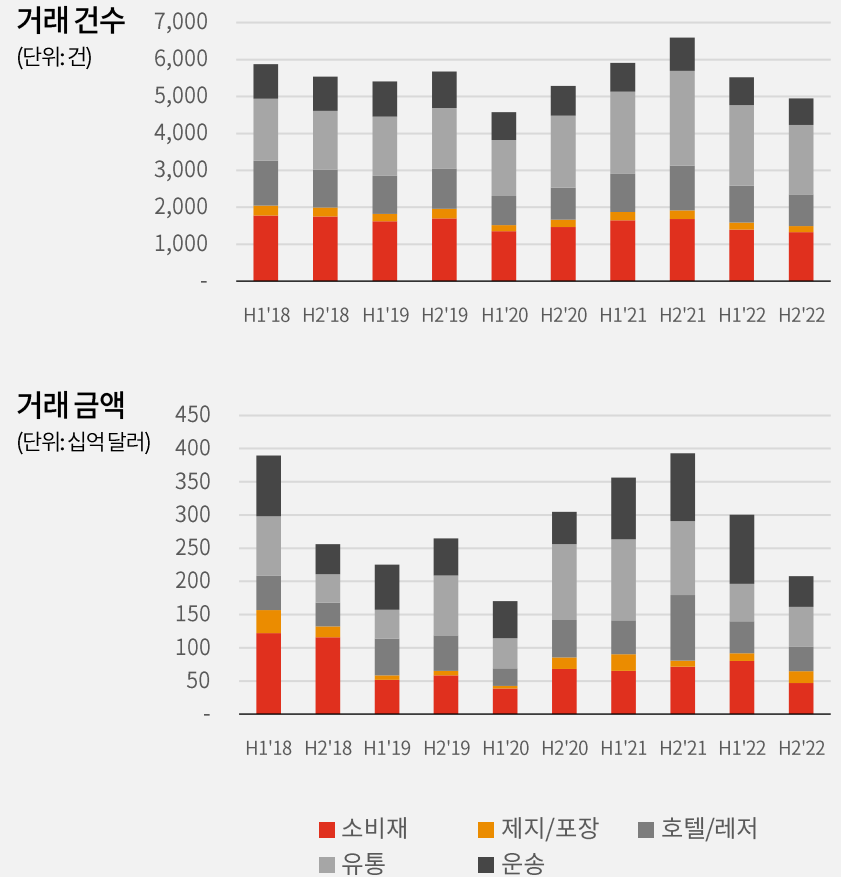
소비재



[소비재] 2022 M&A Trend: Global

-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우려로, 소비재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10,469건(-16% YoY), 5,080억 달러(-32% YoY) 기록
- 특히 '22년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진행하고, 대규모 딜보다 소규모 인수에 주력함에 따라 M&A 규모가 더욱 축소된 양상을 보임
- 섹터 내에서는 유통이 가장 높은 감소치(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15%, 50%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메가딜의 급격한 감소('21년 8건 → '22년 2건) 때문임
- 호텔·레저 섹터도 '21년 거래 금액 대비 43% 감소하며, 큰 폭의 변동을 보임. 팬데믹 이전인 '18~'19년 평균 대비로도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15%, 13%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레저 영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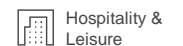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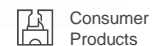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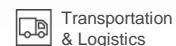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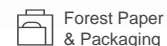
[소비재]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22년 최대 M&A 거래는 투자기관인 Schema Alfa (前 Schemaquarantatre)의 교통 인프라 기업 Atlantia 인수건(521억 달러 규모)
- 그 뒤로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거대 M&A는 대부분 소비재와 유통 섹터 중심으로 이루어짐

Top 10 Global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Atlantia SpA	 Schemaquarantatre SpA	Corporate	 Toll motorway operator	52.1 
2	 Firmenich International SA	 Koninklijke DSM NV	Corporate	 Fragrance producer	20.7 
3	 Albertsons Cos Inc	 Kroger Co	PE	 Grocery retailer	19.7 
4	 Swedish Match AB	 Philip Morris Investments BV	Corporate	 Tobacco manufacturer	14.8 
5	 Kohl's Corp	 Franchise Group Inc	PE	 Department store operator	7.7 
6	 LeasePlan Corp NV	 ALD SA	Corporate	 Passenger car leasing	5.5 
7	 Clif Bar & Co	 Mondelez International Inc	Corporate	 Energy bar manufacturer	5.3 
8	 Chelsea Football Club Ltd	 Investor Group	PE	 Football club	5.2 
9	 DP World PLC-UAE Assets	 Caisse de Depot et Placement du Quebec	PE	 Marine cargo handling	5 
10	 MGM Grand Las Vegas & Mandalay Bay Joint Venture	 VICI Properties Inc	PE	 Hotels and motels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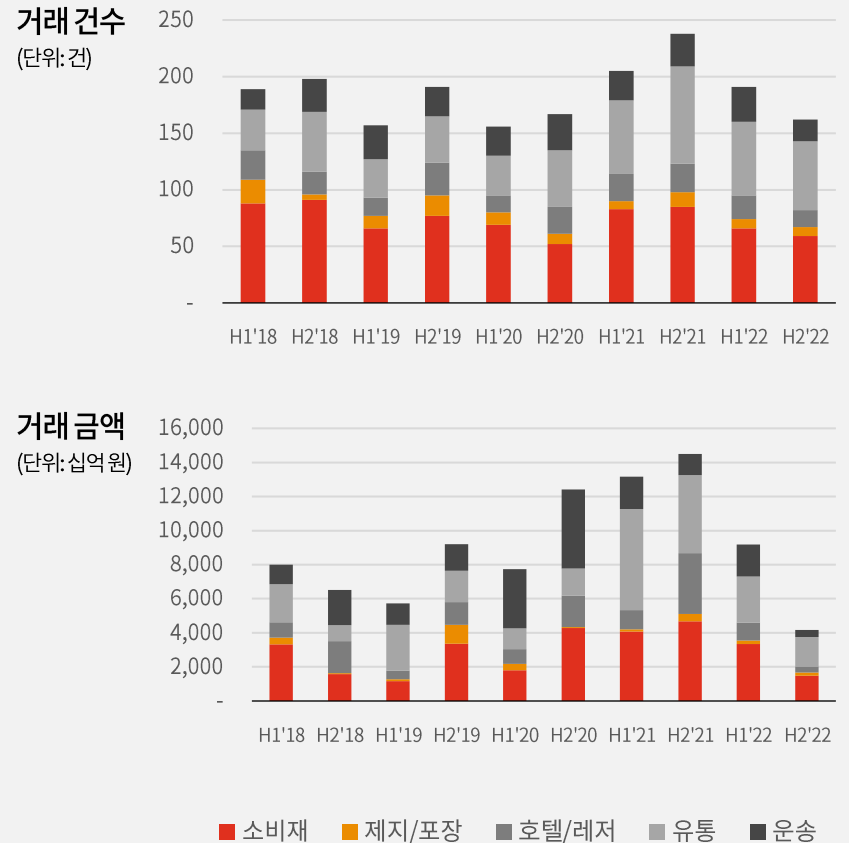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소비재] 2022 M&A Trend: 국내

- '22년 국내 소비재 부문의 M&A 거래 건수는 353건(-20% YoY), 거래 금액은 13조 4천억 원(-52% YoY) 기록.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과 비교시에도 소폭 감소한 추세(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4%, -9%)
- '21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3조 5,591억 원)에 따른 기저 효과로 '22년 소비재 M&A 시장 역성장이 크게 나타남. 또한 팬데믹으로 급성장했던 온라인 및 이커머스 부문이 경기하강 영향으로 성장 둔화를 경험 중이며, 이에 따라 M&A 심리도 위축
- 세부 섹터별로는, 팬데믹 이전 대비 M&A가 증가한 영역은 유통('18~'19년 평균 대비 거래 건수 54% ↑, 금액 15% ↑)이 유일하며, 이는 COVID-19 이후 온라인으로의 채널 대전환을 위한 M&A가 활발했기 때문
- 반면, 팬데믹 이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M&A 활동이 감소한 섹터는 제지·포장, 호텔·레저 순이었음(거래 금액 기준 각각 52%, 39% 감소)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소비재] 2023 M&A Outlook: Global

-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 불안감은 여전하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사업영역 Transformation을 위한 M&A 활성화 전망
- PE들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소규모 볼트온(bolt-on) 거래와 타기업·PE와 협력을 통한 구조화 딜 및 재융자 추진에 주력할 전망
- 적자를 겪는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을 위해 보다 활발하게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이에 맞춰 풍부한 미집행 약정금(Dry Powder)을 지닌 PE, 현금이 풍부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회추구형 M&A가 증가할 전망

2023 M&A Hotspots

1 식료품 유통

- '22년부터 기업들의 운영 규모 확대, 핵심 제품·역량 확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해 구축한 파이프라인에 힘입어 '23년 M&A 활성화 전망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 활동 증가할 전망

2 소비재

- 일용소비재(Fast Moving Consumer Goods)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M&A를 견인
- 소비재 카테고리별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위한 인수, 매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23년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반려동물 관련 사업

-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반려동물 소유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M&A 규모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
- 기업 및 PE 투자자들은 제품·서비스 확대, 역량 제고 또는 지리적 확장을 꾀하기 위한 M&A 기회를 엿볼 것

4 소비자 건강

- 건강 관련 M&A는 인구 고령화, 건강 관리 관심 증대, 공공보건의료 투자 부진, 디지털화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
- 헬스케어 사업 분리 등 기업의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및 관련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M&A 시장을 견인

5 호텔 및 레저

- 회복력이 양호한 게임 및 스포츠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와 안정적인 M&A 활동 전망
- 호텔, 식당 그리고 여행 섹터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예상

6 교통 및 물류

- '23년 M&A는 소규모의 카브아웃(carve-out) 딜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나, 견고한 수준 유지할 것
- 관련 player들은 팬데믹 시기 동안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end-to-end 솔루션 개발 및 고객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큼

[소비재] 2023 M&A Outlook: 국내

-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둔화로 소비 활동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나, M&A 시장은 아직까지 풍부한 유동성 보유. 경기둔화기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가치 및 지속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인수주체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필요한 기업 중심

2023년 국내 소비재 산업 M&A 주요 테마

유통	음식료	호텔/레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채널 변화(Two track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의 전환 지속: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하락, 팬데믹 이후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성장세 지속. 유통업체들의 채널 변환 지속되며, 이를 위해 오프라인 채널 축소(점포 축소, 인원 감축, 부동산 부지 매각) 및 온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 * 온라인 강세 속에서, 일부 특색이 뚜렷한 오프라인 채널은 성장 전망. COVID-19 이후 대면 채널의 소멸이 가속화 되어, 반대 급부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의 희소성 부각. 이에 따라 공간력(Magic of Real Space)이라는 개념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특색이 뚜렷한 대면 채널 부상 전망 [물류 중심 투자] 온라인 채널 성공의 핵심은 효율적 배송망 구축이며, 물류 부문은 라스트 마일(last mile)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지속될 것. 이를 위해 유통업체-물류업체 간 합종연횡 및 물류센터 등에 대한 투자도 계속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확보 투자] 음식료 업체들은 곡물가 상승, 주요국의 식료품 원재료 수출 금지, 팬데믹으로 인한 공장가동중단 등의 이슈에 노출되었음. 이에 따라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현지의 농장·공장 등을 인수할 가능성 높음 [선택과 집중]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하고, 간편식·온라인 채널 등의 성장성 높은 곳에 집중 투자하며, 관련 업체 뿐 아니라 물류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지속(콜드체인 및 배송시스템 등) [푸드테크로의 전환] 높아진 인건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푸드테크로의 전환으로 IT(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투자가 이루어질 것 [친환경] ESG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포장·대체식품 등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 투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른 투자심리 회복은 기대난]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회복 추세이나, 언제든 이러한 전염병이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으로 M&A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 [대형화 추구]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여행 수요 회복에 따라 현금이 풍부한 부동산·여행업체는 Valuation 매력이 있는 호텔 M&A에 점차 관심. 금번 시점을 호텔 대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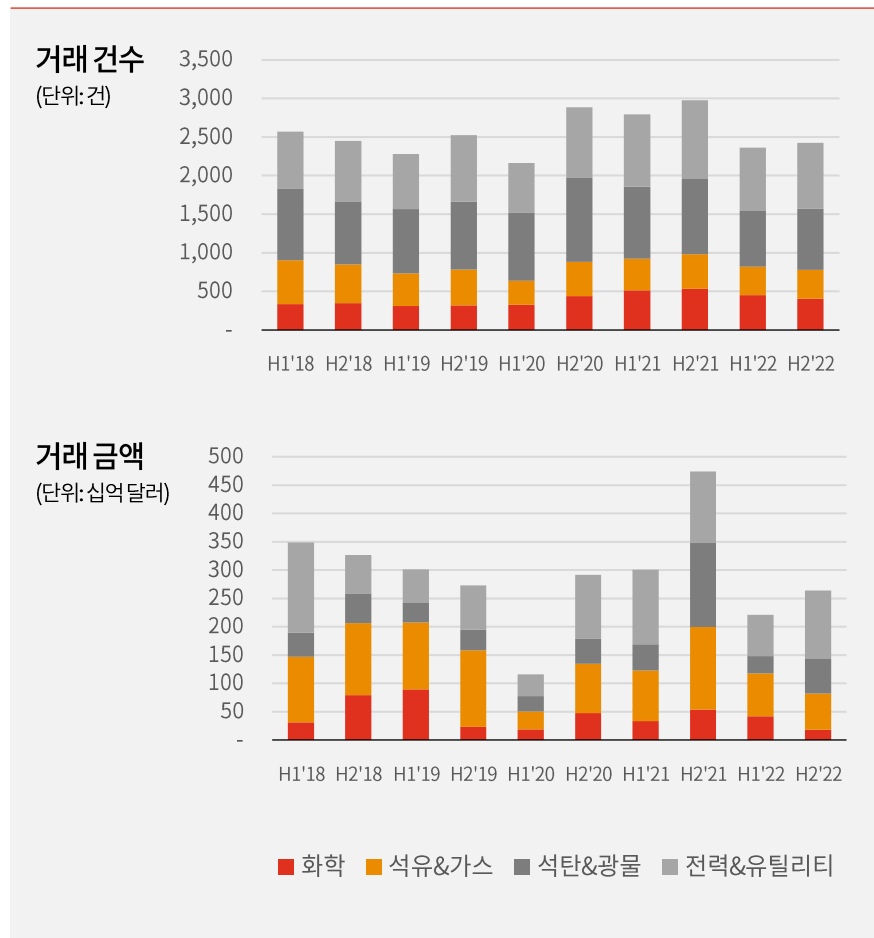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2 M&A Trend: Global

- '22년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는 4,785건(-17% YoY), 금액은 4,850억 달러(-37% YoY)를 기록. M&A 건수는 팬데믹 이전('18~'19년 평균치) 대비 3% 감소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금액은 22% 감소
-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위기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저조한 M&A 실적 시현. 거래 금액이 건수 대비 감소폭이 컸던 것은 일부 메가딜 감소('21년 19건 → '22년 9건)에 기인
- 하위 섹터별로는 전력&유틸리티가 팬데믹 이전 대비 거래 건수 및 거래 금액 모두 증가(각각 +8%, +6%)한 유일한 섹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대체에너지 전환이 주요 현안인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각 국가별 전력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이에 따라 유틸리티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2년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금액 중 40%를 전력&유틸리티가 차지('18~'19년 평균 비중 29%)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22년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내 최대 규모 M&A는 독일 정부의 Uniper사 인수로, 인수금액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함.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손실이 누적된 유럽 에너지 업계 구제의 성격이 강했음
- EUR 섹터 내 Top 10 딜 중 5건이 전력·유틸리티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석유·가스 3건, 화학 1건, 광업·금속 1건 順

Top 10 Global EUR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Uniper S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rporate	Electricity supplier	19.9
2	National Grid Plc-Gas Transmission & Metering Business	Investor Group	PE	Gas transmission and metering	12.7
3	DuPont de Nemours Inc-Mobility & Materials division	Celanese Corp	Corporate	Plastics manufacturer	11
4	Origin Energy Ltd	Investor Group (Brookfield Asset Management)	PE	Energy company	10
5	Electricite de France SA	National Government of France	Corporate	Electricity supplier	9.8
6	NewMed Energy LP	Capricorn Energy PLC	Corporate	Upstream	7.2
7	Con Edison Clean Energy Businesses Inc	RWE Renewables Americas LLC	Corporate	Solar energy company	6.8
8	OZ Minerals Ltd	BHP Group Ltd	Corporate	Copper Ore	6.4
9	THQ Appalachia I LLC	EQT Corp	PE	Upstream	5.2
10	Repsol SA-Global Upstream Business	Breakwater Energy Holdings SARL	PE	Upstream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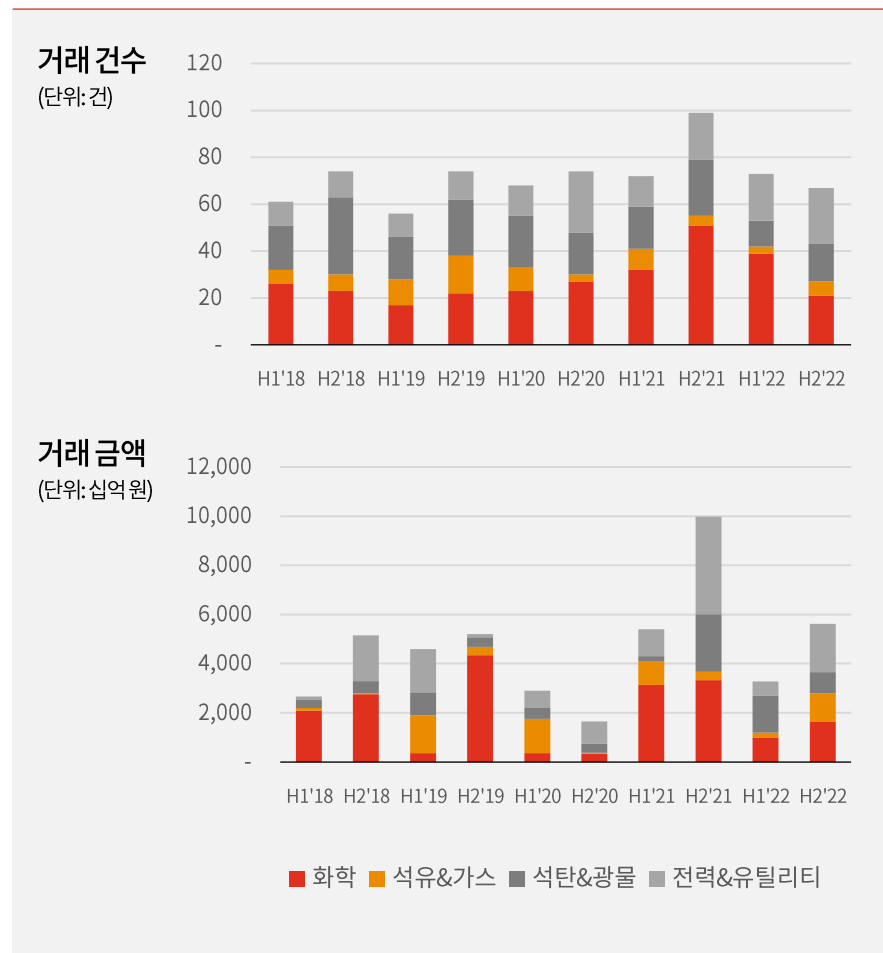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2 M&A Trend: 국내

- '22년 국내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부문 M&A 건수는 140건(-18% YoY), 금액은 8조 9천억 원(-42% YoY)을 기록.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 대비로는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6%, 1% 높은 수치를 기록
- M&A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저조한 실적을 시현했으며, 하반기 인수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적 감소폭이 상반기 대비 컸음. M&A 건수는 상반기 전년 대비 1% 증가했으나 하반기 32% 감소, 금액은 상반기 39% 감소, 하반기 44% 감소했음
- 하위 섹터별로는 화학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팬데믹 이전 대비 거래 금액이 증가한 모습 ('18~'19년 평균 대비 '22년 거래 금액 증감: 화학 45% ↓, 석유&가스 33% ↑, 석탄&광물 119% ↑, 전력&유틸리티 31% ↑). 공급망 및 광물자원 확보 움직임, 에너지원 및 안정적 전력 수급 중요성 부각 등으로 석유&가스, 석탄&광물,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움직임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3 M&A Outlook: Global

-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은 공급망 불확실성, 에너지 위기, 탄소배출량 감축 의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는 섹터 전체를 이끄는 강력한 M&A 유인이 될 것
- 광업 및 금속 섹터: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내 기업 통합 M&A 확대
- 석유 및 가스 섹터: 저탄소 사업 투자 확대 전망
- 전력 및 유틸리티 섹터: 에너지 전동화(Electrification),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화학: '23년초 M&A 부진 전망, ESG 관련 관심 지속

2023 M&A Hotspots

1 바이오 연료

- IOCs(International Oil Companies)의 재생가능 천연가스사 인수를 통한 바이오 연료 사업 강화 전망, 해당 사업분야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 시도 예상

2 핵심 광물

- 주요 업체의 핵심 광물 직접 생산 또는 장기 구매 수요 증가
→ 관련 인수합병 및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3 IOCs의 업스트림 자산

- IOCs는 탄소감축을 위해 업스트림 포트폴리오 조정
→ 국영석유회사는 해당 자산 매각을 통해 이익 수취

4 전기차 투자

- 에너지, 유틸리티 기업의 전기차 밸류체인 투자 확대
→ 배터리 부품부터 충전소 운영까지 전분야에 관심

5 BTM(Behind the meter)과 On-Site 발전 솔루션

- 에너지·인프라 가격 상승, 기술·디지털 공유 플랫폼의 보안 우려
→ 해당 분야 투자 확대

6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IRA는 미국 내 에너지 전환 투자의 게임체인저로,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미국 내 투자 가속화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3 M&A Outlook: **Global**, 계속

2023년 에너지, 유틸리티 및 소재 부문 M&A를 주도할 테마

광업 및 금속

- 주요 M&A 동인은 공급망 안정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현행 제재 여파로 광물업체들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시너지 추구 강화
- 정부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요구 → 국내 기업들의 통합 M&A 증가 전망
- 탄소 감축 목표 → 구리, 리튬 등의 배터리 광물 수요 확대, 기업들의 핵심 광물 직접 소유 또는 장기 구매 수요 확대로 관련 M&A 증가 예상

석유 및 가스

- 중단기적 시장 불확실성(가격 변동, 에너지 전환, 세금, 지정학적 이슈 등) → 리스크를 야기하는 대형·변혁적 딜 보다는 중소규모 볼트온 딜 선호
- 고탄소 발생 업체들의 견조한 현금흐름 → 저탄소(신재생, 전기차, 바이오 연료, 수소) 투자 지속
- IOCs의 비핵심 고탄소 자산 매각 → ESG 기준 강화로 국영석유회사가 주요 인수주체 될 것

전력 및 유틸리티

- 대형 유틸리티 기업: 재무제표 개선, 에너지 보안,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 중심 자본배분을 위해 비핵심 자산 제거 등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 추진
- ‘전동화’가 가치 창출 기회 주도: BTM과 On-site 발전, 탈탄소 난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 가스 배출 자산 매각 등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 및 인수 활동 기대

화학

- 글로벌 경기 둔화, 자본조달 비용 증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 '23년 초 화학 섹터 M&A 부진 전망 → '23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면 맞이할 가능성
- 지속가능성 및 ESG 요구 사항으로 인한 탄소 감축,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 지속
- 사전적 포트폴리오 관리 및 변화 전략 요구
- 공급망 회복력 주시 필요(지역별로 상이한 변동 추세 보임)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3 M&A Outlook: **국내**

- 에너지 가격과 자원 확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배터리 저장, 배전 인프라 등의 고성장 분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ESG에 관심 집중 예상

2023년 국내 에너지, 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주요 테마

ESG	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최적화] 탈탄소 및 친환경 에너지 부문으로 자본배분을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 추구. 특히 고탄소 배출 사업부문 축소 지속 ▪ [탄소감축·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보다는 풍력,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 지속되며, 재생에너지 기술, 탄소포집 등 관련 기술에 대한 M&A가 활발할 전망 ▪ [리사이클 분야 관심 증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금속 및 화학 폐기물 분야의 리사이클 관심 증가. 특히 전기차 확산에 따라 폐배터리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적극적 투자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자원 확보·미국 IRA 대응] 핵심 금속광물(특히 배터리 부문) 확보를 위해 해외 광산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 M&A. 특히 미국 IRA에서 세액 공제 대상을 미국내 생산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증가 전망. 중국 등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 공급처 확보가 중요. 안정적 원료 수급처 확보를 위해 현지 리사이클링 업체와의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직접적 해외 광산 투자 증가 ▪ [수직 계열화] 정부의 자국내 공급망 구축 요구에 따라, 수직계열화를 위한 국내 기업 내 M&A 증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투자] 중장기적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탄소배출시설 매각 또는 탄소저감을 위한 투자 증가, 친환경 에너지원 투자 지속. 전기차 충전 관련 투자 확대 ▪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안정적·다변화된 에너지 공급망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예견되나, 당분간은 화석연료가 필수적. 이에 따라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증가. 중단기적 가스섹터 관련 M&A, 장기적 청정에너지 M&A 증가 전망 ▪ [디지털화] 전력망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투자 지속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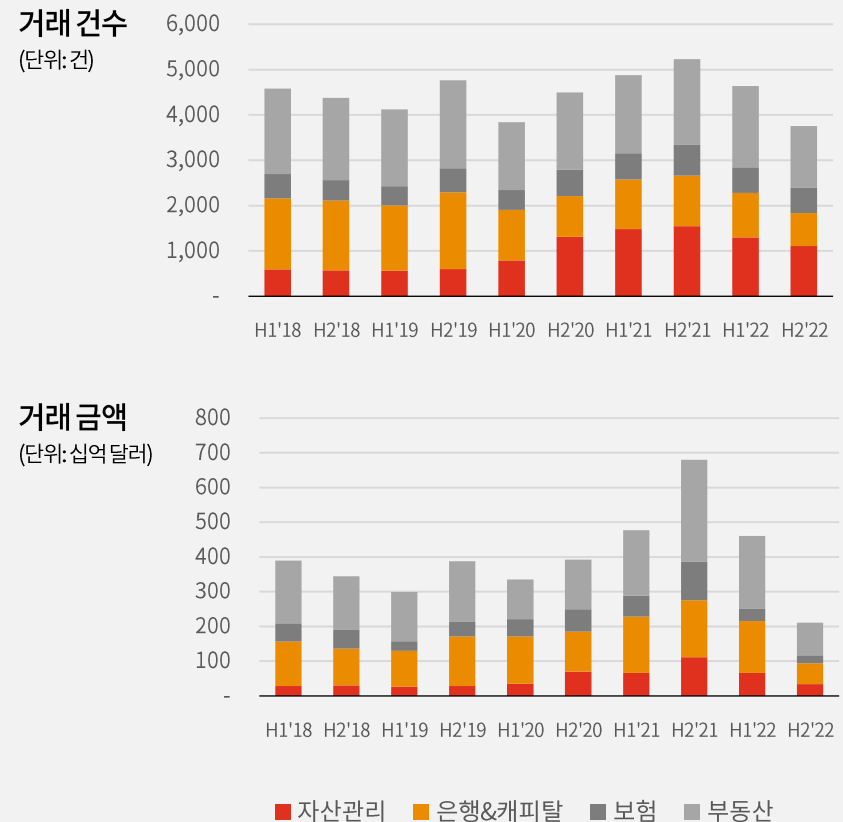
금융



[금융] 2022 M&A Trend: Global

- '22년 금융 부문 M&A 거래 건수는 8,393건(- 17% YoY), 거래 금액은 6,720억 달러(-42% YoY) 기록.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과 비교시에도 소폭 감소한 추세(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6%, -5%)
- 시장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하였으며, 특히 금융 부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 제재 영향으로 더 큰 불확실성 상황에 노출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
- 다만, 거래 건수 변동 대비 거래 금액의 감속폭이 컸는데, 메가딜(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이 '21년 21건 → '22년 5건으로 감소했기 때문
- 세부 섹터별로는, 전 영역이 전년 대비 부진한 가운데, 업종 내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이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37% YoY, 거래 금액 기준)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금융]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금융업 내 '22년 최대 규모 M&A 거래는 인도 HDFC 금융그룹 내 지분 거래로, 규모는 604억 달러
- 금융업 글로벌 Top 10 딜 중 5건이 부동산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외에 은행·캐피탈 3건, 보험 1건, 자산관리 1건 順

Top 10 global financial services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 Ltd	 HDFC Bank Ltd	Corporate	 Investment banking and brokerages	60.4 
2	 Mileway BV	 Investor Group	PE	 Real Estate	23.7 
3	 Duke Realty Corp	 Prologis Inc	Corporate	 Real Estate	21.7 
4	 First Horizon Corp	 Toronto-Dominion Bank	Corporate	 Commercial and Retail Banks	13.5 
5	 American Campus Communities Inc	 Abacus Parent LLC	PE	 Real Estate	12.8 
6	 Alleghany Corp	 Berkshire Hathaway Inc	Corporate	 Property & Casualty	11.6 
7	 HSBC Bank Canada	 Royal Bank of Canada	Corporate	 Commercial and Retail Banks	10 
8	 Store Capital Corp	 GIC and Oak Street Real Estate	PE	 Real Estate	9.2 
9	 Baring Private Equity Asia Ltd	 EQT AB	PE	 Alternatives	7.5 
10	 Healthcare Trust of America Inc	 Healthcare Realty Trust Inc	Corporate	 Real Estate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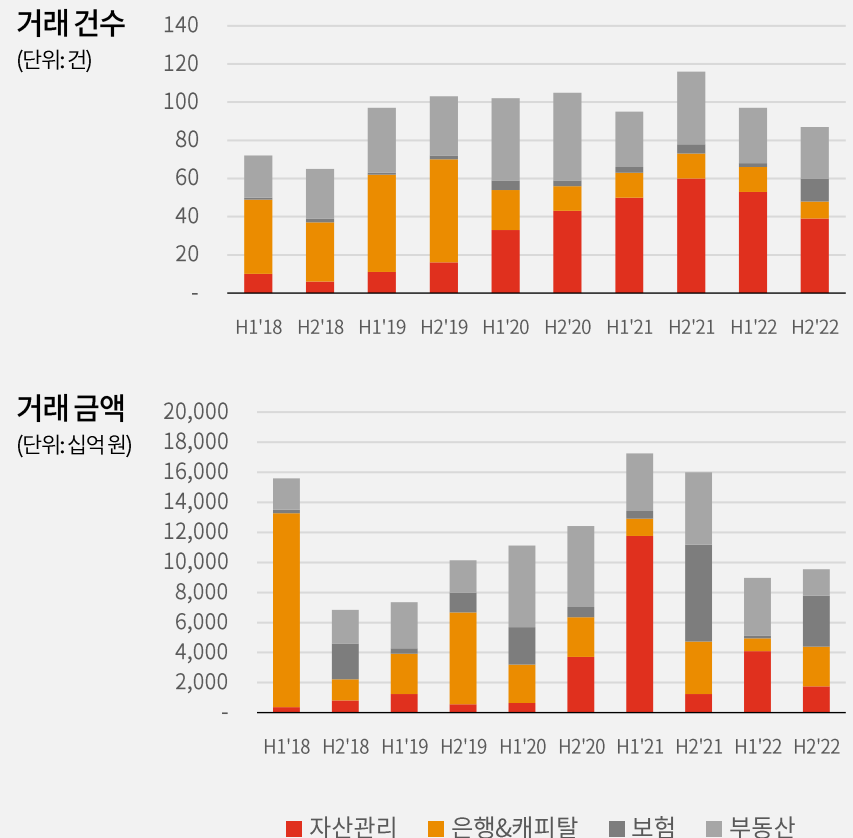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Real Estate
  Insurance
  Banking & Capital Markets
  Asset & Wealth Management

[금융] 2022 M&A Trend: 국내

- '22년 국내 금융 M&A 거래 건수는 184건(-13% YoY), 거래 금액은 18조 5천억 원(-44% YoY) 기록. 팬데믹 이전('18~'19년 평균)과 비교시에는 거래 건수는 9% 증가, 거래 금액은 7% 감소
- '21년은 민영화 관련 우리금융지주 지분 일부 매각(약 9천억 원), K뱅크 유상증자(1조 2,500억 원), 현대카드 지분 매각(5,856억 원) 등의 대규모 딜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해당 딜의 기저효과로 인해 '22년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난 상황
- 세부 업종별로는 전 영역에서 M&A가 감소. '22년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부문은 COVID-19 이후 M&A가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인데 ('18~'19년 평균 대비 거래 건수 328% ↑, 금액 292% ↑), 가상자산·증권 등 새로운 투자영역 확대와 핀테크 관련 투자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금융] 2023 M&A Outlook: Global

- 금융 산업은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경기둔화, 암호화폐 시장 혼란 등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직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플랫폼 및 핀테크 Player에 대한 대응·높아지는 금융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M&A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
- 금융 산업에서 가장 큰 M&A 기회는 고객주도 혁신, 공급망, 오퍼레이션, 디지털 전환, ESG 부문에서 일어날 것

2023 M&A Hotspots

1 핀테크

- 투자자들은 여전히 핀테크 회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핀테크 섹터는 금리상승 등 비우호적 시장 환경으로 인해 과거 대비 Valuation 하락
- 이는 이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력적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금이 풍부한 대형 은행들이 M&A를 진행할 가능성 높음

2 사모펀드(PE)

- 사모펀드(PE) 들은 보험중개, 결제, 플랫폼, 핀테크, 인슈어테크, 레그테크 등에 집중해왔으며, '2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
-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수익률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

3 합병(통합)

- 적정 수준의 몸집 키우기는 수익 실현을 위해 필수 요소. 특히 규모의 경제가 더 필요한 금융 내 소규모 섹터를 중심으로 합병(통합)이 활발히 일어날 것

2023년 M&A를 주도할 테마

ESG

- 전통적으로 Risk & Return이 성과 측정의 주요 요소로 사용. 최근에는 ESG가 새로운 성과 지표로 추가 고려되고 있음
- ESG 규정 제정뿐 아니라, 자본 배분·투자 및 전략적 실행 관련 전반적 활동에 ESG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디지털 전환

-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는 여전히 기업들의 전략적 우선 순위
- 데이터 활용,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구현, 운영 효율성 증대, 거래 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M&A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구조조정

- 경기둔화가 장기화 될 경우,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대비 훨씬 더 탄탄한 자본 구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업계에서 비핵심 자산 및 부실대출(NPL) 매각과 같은 자산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 높음

[금융] 2023 M&A Outlook: 국내

- 전반적으로 M&A가 다소 부진한 가운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M&A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
- 전통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나, 최근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Valuation은 다소 하락할 전망
- 경기둔화에 따라 NPL 및 비핵심 자산 매각 증가하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M&A 증가할 것
- 은행의 경우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신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며, M&A 시장 내 주요 매수자로 부상

2023년 국내 금융 산업 M&A 주요 테마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NPL, PF자산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과 플랫폼에 대한 투자 지속]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플랫폼과 디지털에 대한 투자 지속. 디지털 역량 확보 및 클라우드 기술 투자로 금융기관 현대화 노력 지속.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점포 축소, 인원 감축 등도 지속 추진 ■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심사·마케팅·리스크관리 등의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 [업종 간 합종연횡] 보험은 금융업 외 새로운 비즈니스(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L 매각 증가] 하반기로 갈수록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을 위주로 부실이 증가할 가능성 높음. 이에 따라 NPL 매각 증가 전망 ■ [PF 부실 우려 점증] 부동산 시장 하강에 따라 PF 부실 우려 증가. PF 비중이 높은 증권사, 저축은행의 경우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 높으며, 이에 따라 부실 대출 기관이 시장에 매물화될 가능성 높음. 다만 과거 '08년 금융위기 대비하여, 국내 은행 등의 자본력은 탄탄한 상황으로, 시스템 위기 등이 재발될 가능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심 자산 매각] 금융권이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관심을 집중함에 따라, 비핵심 자산 매각 증가 전망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몸집 키우기]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의 제 2 금융권을 중심으로 M&A 매물이 증가할 전망이며, 탄탄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 기반 금융지주들이 주요 매수자가 될 것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투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대체 투자와 지속가능성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ESG 요소를 고려한 자본 배분 및 투자 심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준 및 실행 전략 구체화 전망. 이에 따라 ESG 분야에 대한 자금 집행 지속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투자 지속] 국내 금융시장 성장 둔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해외 금융사 M&A가 지속될 전망. 은행 기반 금융지주들은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은행·증권·보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 인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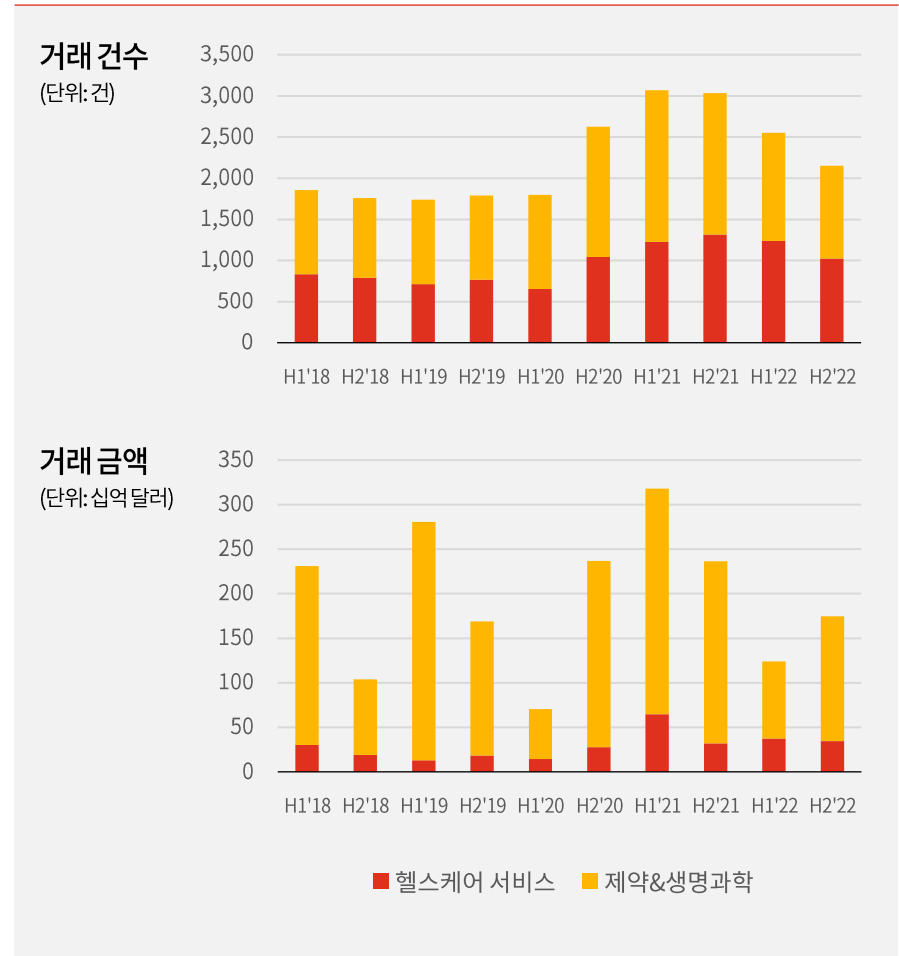
헬스케어



[헬스케어] 2022 M&A Trend: Global

- '22년 글로벌 헬스케어 M&A 거래 건수는 4,703건(-23% YoY), 금액은 2,990억 달러(-46% YoY)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저조한 실적 시현.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과 비교시 M&A 건수는 32% 증가한 수치였으나, 금액은 24% 감소
- 건수 대비 금액이 특히 감소한 이유는 '22년 메가딜의 축소('21년 20건 → '22년 9건) 때문임. '22년 발표된 글로벌 헬스케어 메가딜 9건 중 5건은 하반기(11,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나머지는 '23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헬스케어 하위 섹터별로는, 제약&생명과학 대비 비중이 낮았던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됨. 헬스케어 서비스의 M&A 금액 비중은 '18~'21년 4년 평균 13%에서 '22년 24%로 확대되었으며 건수 비중 또한 42%에서 48%로 증가했음.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는 원격의료, 디지털화, 컨슈머헬스(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부문의 시장 성장성이 주목받은 결과로 판단됨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2022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내 최대 규모 M&A는 미국 빅파마 암젠의 바이오테크사 호라이즌(아일랜드 본사, 미국 상장) 인수로, 인수금액은 약 271억 달러에 달함. 호라이즌의 희귀질환 치료제, 보유 파이프라인 등은 암젠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고 시너지를 낼 전망
- 헬스케어 섹터 내 Top 10 딜 중 4건이 바이오테크 부문에서 이루어졌고, 제약 2건, 홈 헬스케어 2건, 의료기기 1건, 의료센터 1건 순

Top 10 Global Health Industries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Horizon Therapeutics PLC	 Amgen Inc	Corporate		Pharma	27.1 
2	 ABIOMED Inc	 Johnson & Johnson	Corporate		Medical Devices	19.2 
3	 Biohaven Pharmaceutical Holding Co Ltd	 Pfizer Inc	Corporate		Biotech	12.6 
4	 Chr Hansen Holding A/S	 Novozymes A/S	PE		Biotech	9.6 
5	 Summit Health	 Village Practice Management Co LLC	PE		Physician Medical Groups	8.9 
6	 Signify Health Inc	 CVS Health Corp	PE		Home Healthcare	7.6 
7	 Nimbus Lakshmi Inc	 Takeda Pharmaceutical Co Ltd	PE		Biotech	6 
8	 LHC Group Inc	 Optum Inc	Corporate		Home Healthcare	5.3 
9	 Global Blood Therapeutics Inc	 Pfizer Inc	Corporate		Pharma	5.1 
10	 Turning Point Therapeutics Inc	 Bristol-Myers Squibb Co	Corporate		Biotech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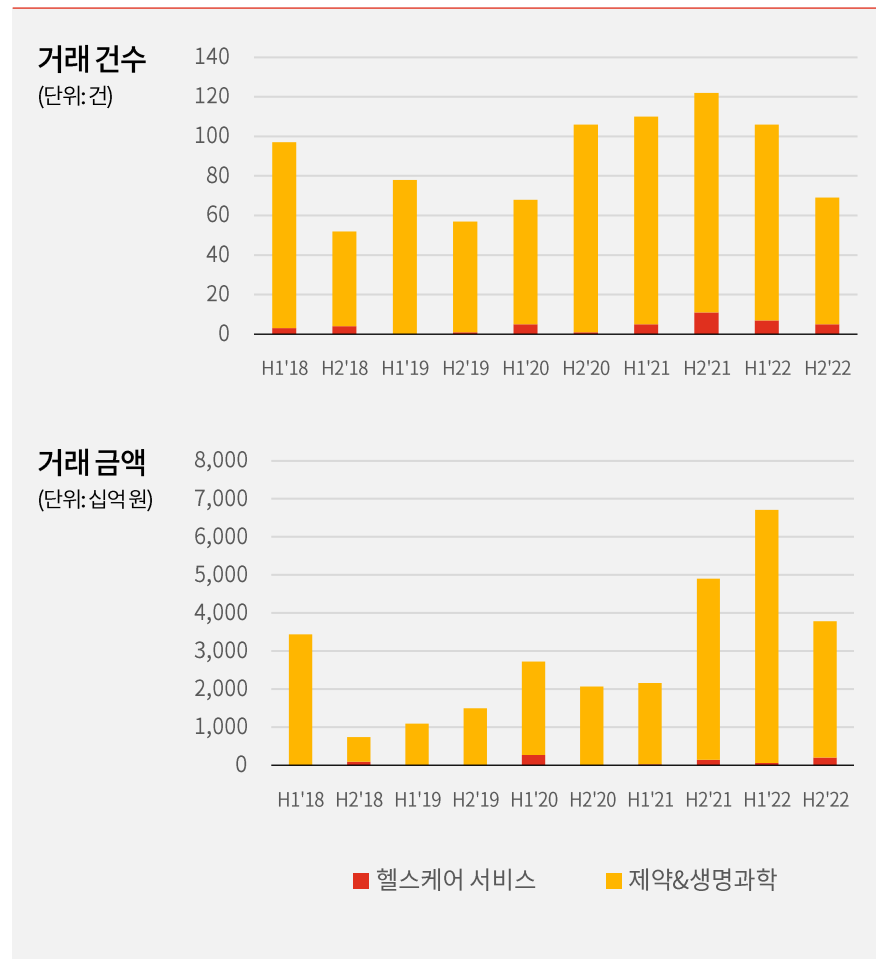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Pharma & Life Science  Health Services

[헬스케어] 2022 M&A Trend: 국내

- '22년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175건(-25% YoY), 금액은 10조 5천억 원(+49% YoY)을 기록. M&A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저조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대폭 개선된 실적을 시현
- 금액 기준 실적 개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인수 (약 2조 8천억 원) 등 대규모 딜 완료가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 국내의 경우 글로벌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약세가 두드러짐. 전체 헬스케어 M&A에서 헬스케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의 경우 M&A 건수 대비 48%, 금액 대비 24%였던 반면, 국내는 각각 7%, 3%에 불과. 글로벌 대비 국내 컨슈머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특히, 컨슈머헬스 중 일반의약품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성장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3 M&A Outlook: Global

- 헬스케어 산업은 매크로 불확실성, 팬데믹 종료에 따른 정부지원 축소, 인력난으로 인한 디지털 수요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 그러나 헬스케어 기업이 보유한 충분한 현금과 PE의 대규모 자금(Dry Powder)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M&A가 지속될 것
- 제약 및 생명과학 섹터: 비핵심 자산매각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바이오테크사 인수로 파이프라인 보강, CRO·CDMO 투자 확대
- 헬스케어 서비스 섹터: 디지털화 투자 확대, 정부지원 축소로 부실화된 기업 구조조정, 소비자 중심 컨슈머헬스 분야 강제 전망

2023 M&A Hotspots

1 제약 및 생명과학

- 바이오테크사 인수를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
대형 제약사의 파이프라인 보강을 위한 중소형(50-150억 달러)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가 주목받을 것. 혁신 자산이 제한적이라 인수경쟁은 심화되고, 소규모 딜과 JV 체결 형태가 많아질 전망
-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확보
대형 제약사들은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창출된 현금을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핵심 경쟁력 강화에 투자할 전망. 금리인상, 주가하락 등의 외부 환경도 매각에 힘을 실을 것
- CRO, CDMO, 메드테크 투자 확대
PE의 CRO(임상시험수탁기관), CDMO(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메드테크 투자가 지속될 것. 견조한 현금흐름은 상기 섹터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mRNA, 세포·유전자 치료 기업들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2 헬스케어 서비스

- 컨슈머헬스 분야 강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컨슈머헬스 기업 투자매력도가 상승할 전망. 최근 분사된 컨슈머헬스 전문기업, 비처방 일반의약품 기업 등의 M&A가 특히 활성화될 것
- 정부지원 축소로 인한 기업 부실화
팬데믹 기간 이루어진 정부 지원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부실화된 헬스케어 기업 관련 딜이 증가할 것. 특히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은 병원들의 파산, 매각 등이 예상됨
- 원격의료 및 디지털화 투자 증가
팬데믹 기간 심화된 의료인력난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부각시킴. 원격의료, 헬스테크·분석 기업 투자 증가 전망

[헬스케어] 2023 M&A Outlook: Global, 계속

2023년 M&A를 주도할 테마

불확실성 축소

-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확실성' 추구
- M&A를 통한 공급망의 Onshoring, Nearshoring, Friendshoring 증가, 리드타임 감소 전망

포트폴리오 최적화

-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전략에 부합되는 자산을 인수
→ 포트폴리오 최적화

파이프라인 강화

-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중형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 증가, AI 신약개발 등의 디지털 전환 확대

롤업과 구조조정

- 세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 기관들의 통합 및 규모 확대(롤업 ex) 안과, 시험관 수정, 영양원, 노인 의료
- 정부의 팬데믹 지원 축소로 운영 및 유동성 위기 겪는 업체들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소비자화 & 디지털화

- 소비자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화 관련 역량 획득을 위한 M&A 및 파트너십 체결
- 제약사의 디지털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테크 벤처, 스타트업 모니터링 확대 전망

ESG

- 헬스케어 산업 내 다수 기업들이 매력적인 ESG 투자 기회 제공

[헬스케어] 2023 M&A Outlook: 국내

- 헬스산업의 혁신성과 매력적인 시장 성장률로 인해 M&A에 대한 관심 지속
-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헬스케어 기업들의 Valuation이 하락한 시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신기술과 디지털 역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중소형 혁신기업 중심 M&A를 확대할 것

2023년 국내 헬스케어 산업 M&A 주요 테마

제약 & 생명과학

- [제약: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M&A 증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의존도 재평가로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M&A 활발 예상. 동시에 거대 제약기업은 포트폴리오 최적화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과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 기업, CDO 및 CMO 인수 경쟁 치열 전망
- [CMO: 높은 성장성 지속, 해외 현지 투자 증가]
'22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개발 및 생산까지의 밸류체인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 명.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대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목적. 이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발주 제한, 중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규제 예상되며,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공장 설립 및 미국 현지 생산 업체와 협업이 필요. 이를 위한 해외 공장 투자 및 관련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증가 전망
- [바이오: 낮아진 Valuation으로 인수 매력도 증가]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임상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중요. 최근 인플레이션, 고환율, 유동성 위축 등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바이오 기업은 임상 중단, 임상 지연으로 인해 파이프라인 가치가 하락할 여지가 높음. 낮아진 Valuation을 바탕으로 제약 및 일부 대기업들의 바이오 산업 인수 니즈가 증가할 것

헬스케어 서비스

- [안정적인 이익 창출 기업에 대한 관심 증가]
경기둔화 시기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기업에 대한 관심 고조되며,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이익을 창출해내는 비즈니스에 관심. 이에 따라 원격의료, 헬스 테크 등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저하. 특히 COVID-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가 다소 뒤로 밀릴 가능성 높음. 다만, 이 기간 동안 원격의료, 헬스 테크 및 데이터 분석 기업들의 Valuation이 하락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 적기가 될 수 있음
- [매수자 위주의 시장]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들의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반면,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VC들의 Exit 수단으로써 IPO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얼어붙은 IPO 시장의センチ멘트 개선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 M&A 중요성 증가하며, 자본력이 있는 대형사들의 영향력 증가
- [컨슈머 헬스 고성장 지속]
고령화 및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한 관심 지속. 영양제 뿐 아니라, 식사대용 식품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겨냥한 틈새 상품 활성화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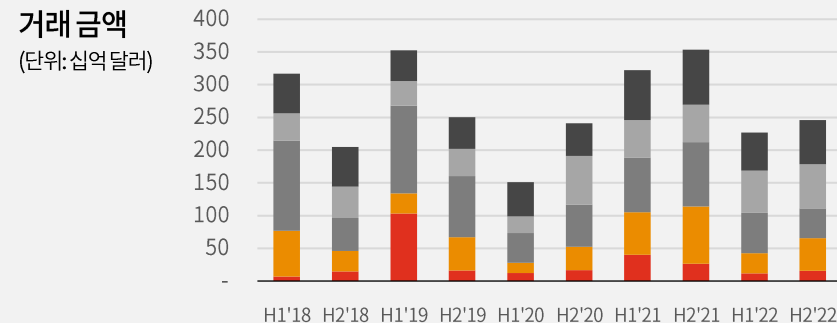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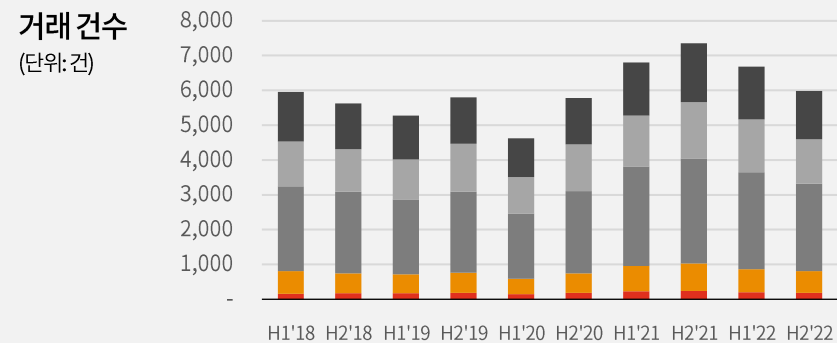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재 및 자동차] 2022 M&A Trend: Global

- '22년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의 M&A 거래 건수는 12,658건(- 11% YoY), 거래 금액은 4,730억 달러(-30% YoY)로 글로벌 전체 시장 감소율(-17%, -37%)대비 선방.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과 비교 시에는 거래 건수 12% 증가, 금액은 16%감소
-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및 제조 부문 M&A 거래액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지역별로는 큰 편차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인도의 M&A 규모는 33% 증가한 반면, 팬데믹 영향으로 중국시장은 35% 감소. 미국은 M&A 건수가 10% 감소한 반면 금액은 54% 감소했는데, 이는 메가딜(미화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의 급격한 감소 때문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 항공우주/방위
- 자동차
- 비즈니스 서비스
- 건설/엔지니어링
- 제조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22년 최대 M&A 거래는 International Holdings(UAE)의 Alpha Dhabi Holding(UAE 건설사) 인수로, 총 거래 금액 333억 달러
- 글로벌 Top 10 딜 중 4건이 자동차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차량제조 뿐 아니라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의 모빌리티 투자가 진행 중 이외에 건설·엔지니어링이 3건, 제조, 항공·방위 등에서 각각 1건씩 발생

Top 10 global IM&A services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Alpha Dhabi Holding PJSC	 International Holdings Co PJSC	Corporate	 Construction	33.3 
2	 Dr Ing hcF Porsche AG	 Porsche Automobil Holding SE	Corporate	 Vehicle Manufacturing	10.1 
3	 Westinghouse Electric Co LLC	 Investor Group	Corporate	 Special industry machinery	7.9 
4	 IAA Inc	 Ritchie Bros Auctioneers Inc	Corporate	 Automotive Retail & Wholesale	7.3 
5	 AVIC Electromechanical Systems Co Ltd	 China Avionics Systems Co Ltd	Corporate	 Search, detection, and navigation equipment	6.7 
6	 Emerson Electric Co-Climate Technologies Business	 BCP Emerald Aggregator LP	PE	 Environmental controls	6.3 
7	 Ambuja Cements Ltd	 Endeavour Trade & Investment Ltd	Corporate	 Construction materials manufacturing	6.2 
8	 Aiways Holdings Ltd	 China Liberal Education Holdings Ltd	Corporate	 Vehicle Manufacturing	5.5 
9	 Homeserve PLC	 Hestia Bidco Ltd	PE	 Construction	5 
10	 Hillwood Investment Properties-US Logistic Properties	 CBRE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e	 Professional Advisory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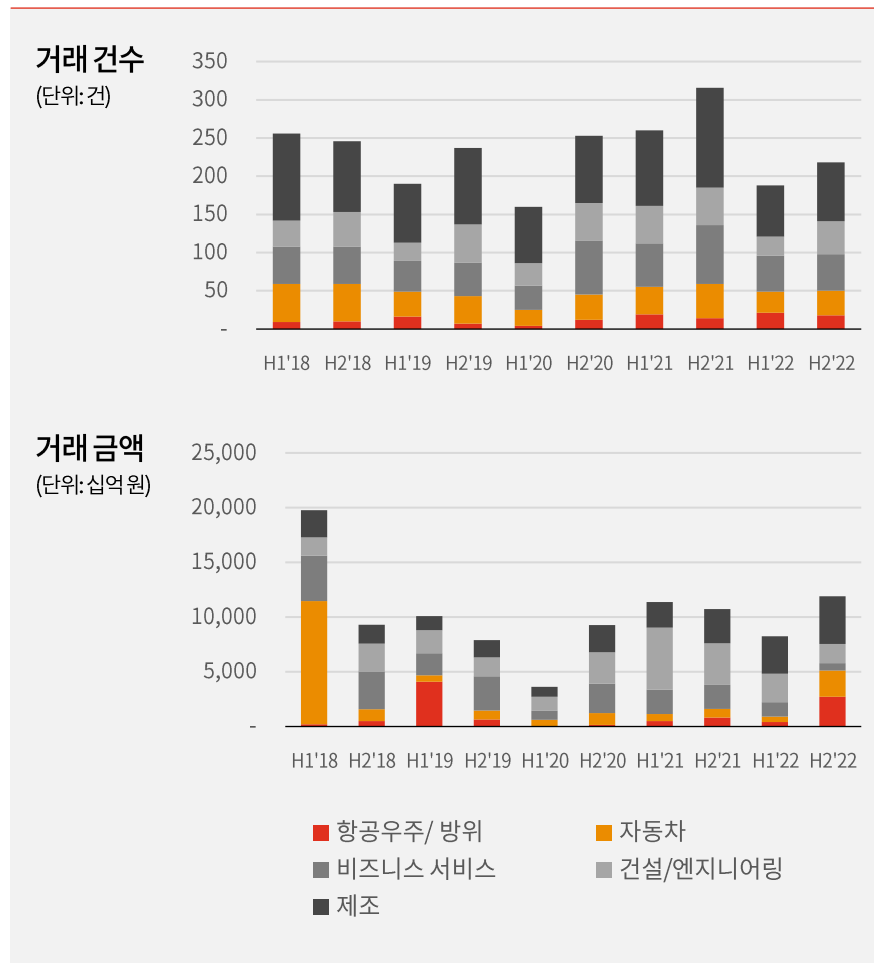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Aerospace & Defence
  Automotive
  Engineering & Construction
  Industrial Manufacturing
  Business Services

[산업재 및 자동차] 2022 M&A Trend: 국내

- '22년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의 M&A 거래 건수는 406건(- 30% YoY), 거래 금액은 20조 1천억 원(-9% YoY) 기록. 전년 대비 M&A가 저조하였으나, 한국 시장 전체(-33% YoY, 금액기준) 대비 양호한 상황.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과 비교시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13%, 14% 감소한 수준
- 쌍용건설(약 1조 8천억 원), 한국유리(5,904억 원), 한화첨단소재(6,800억 원) 등이 대형 딜로 '22년 M&A 시장을 주도
- 세부 업종별로는 팬데믹 이전 대비 M&A가 가장 크게 증가한 영역은 제조업('18~'19년 평균 거래 금액 대비 119% ↑).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제조업 내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3 M&A Outlook: Global

- 기업들이 성장에서 수익으로 초점을 전환하면서, 기존 포트폴리오 내 분할 및 매각을 고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 확보, 공급망 구축, 규모 효율성 창출 등을 위해 M&A를 진행할 것
- 특히 유럽에서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인한 마진 축소를 방어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추구형 비즈니스 통합이 활성화 될 예정

2023 M&A Hotspots

1 혁신적 기술

-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 기술, 클라우드,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관련 M&A가 활발히 일어날 것

2 데이터 분석

- 마진 축소와 높은 주문(Order) 변동성 下 회사 이익 방어하기 위해 에너지·원자재 등에 대한 분석 및 비용 관리가 중요

3 인재 확보

- 디지털 및 ESG 관련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재 확보가 필요. 이러한 인력 확보를 위한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

4 사이버 보안

- 디지털 및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하여 산업재 및 자동차 섹터 내 사이버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항공우주·방산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

2023년 M&A를 주도할 테마

포트폴리오 최적화

- 경기 하강기 진입에 따라,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평가하여 계속 투자할 비즈니스와 매각할 비즈니스를 결정할 것
- ESG 투자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기존 자산 매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경제 침체 지속 시 부실 기업 M&A가 증가할 수도 있음

디지털 전환

- 디지털화는 산업재 및 자동차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
- 특히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서비스, 항공우주·방산 및 제조업 부문의 핵심 요소

섹터 융합

- 자동차 회사는 지속적으로 전동화 초기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을 것
- 또한 원자재 및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타 영역의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

ESG

- ESG는 기업의 가치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수단으로서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

[산업재 및 자동차] 2023 M&A Outlook: Global, 계속

- 세부 섹터별로는 항공수요 회복과 국방예산의 안정성으로 인해, 항공우주 · 방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 자동차 업종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주요 테마. 건설 부문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제조 부문은 디지털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 기계 및 장비 니치마켓 통합 추진으로 꾸준한 M&A 기대

2023년 섹터별 Global M&A Trend

항공우주 · 방산

-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항공기 생산 주문이 증가 추세. 항공기업체는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M&A를 모색 중
- 많은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제로를 목표로 R&D 강화하고 있으며, 인재와 기술 확보 위한 M&A 활동 지속될 것
- 방산업체들은 핵심역량 확보 & 비핵심 자산 매각 전략의 일환으로, 소규모 인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드론, 자율 시스템, 사이버, 우주, 초음속 등의 틈새 및 특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인수가 증가할 것

건설 · 엔지니어링

- 주거용 주택 부문은 '23년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에 직면. 반면, 비주거용 건설 부문은 안정적. 미국 인프라 투자 및 IRA, EU의 '차세대EU'와 같은 법률은 도로 · 교량 · 철도 및 공공 주택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을 할당하고 있음
- ESG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것. 대출 기관이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ESG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는 자본비용과 가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
- 인플레이션 · 높은 이자율로 인한 투입비용 증가로, 자금 압박을 느끼는 일부 기업은 M&A 매물화 될 것

자동차

-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 핵심 기능 인수 및 비핵심 자산 매각
-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및 COVID-19 관련 공장 폐쇄로 인한 생산 중단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높은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확보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 공급망 안정성 확보 위한 M&A가 계속될 것이며, 기술 부문뿐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관련 필수 광물 확보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 예상
-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디지털 기반 미래차량 구현을 위한 기술 투자 증가
-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동차 부품에서 부실기업 M&A가 증가할 것

제조업

- 제조업체들은 M&A를 통해, 전체 시장의 공급망 안정화 및 복원력 강화,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게 될 것
- 기업과 소비자가 ESG에 집중함에 따라, 제조업은 산업 전체적으로 ESG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제품을 확보하려는 노력 지속

[산업재 및 자동차] 2023 M&A Outlook: 국내

-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가격상승, 숙련된 인력부족 등 불확실성 지속
- 장기적 가치창출 기회 모색위한 ①경쟁력 확보 차원의 테크놀로지 기술분야(인력확보 포함), ②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반영한 공급망 확보 ③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사업 위한 EGS구축 투자 증가 기대
- 미래 사업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 차세대 원자재,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M&A는 지속 증가 전망

2023년 국내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주요 테마

자동차	건설 · 엔지니어링	제조업 (기계)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최적화] 자동차부문 대변혁을 위한 투자 지속. 비핵심 자산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집중. 파워트레인 섹터 부품 기업들의 구조조정형 or 합병추진형 M&A 증가 예상 ▪ [SW 투자 증가] HW뿐 아니라 SW(플랫폼, 커넥티브카 등)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M&A 및 전략적 제휴 증가. 다만, 한정된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자율주행은 기존 대비 투자 다소 지연 ▪ [공급망 안정화] 특히 배터리 관련 업체와 전략적 제휴 증가 ▪ [자동화 투자] 인건비 상승, 노조 등의 이슈로 공장 자동화를 위한 투자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부문에 대한 관심] 국내 주택부문의 성장이 주춤해 지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 정부의 SOC 투자 등 해외 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특히 해외 인프라 투자 사업 지속 확대. 이에 따라 해외 부문에 강점을 가진 건설사에 대한 관심 증가 ▪ [ESG 분야 수주 증가] ESG에 대한 관심 증가하며, 친환경 공장 및 스마트 시티, 에너지 절감형 건축 관련 기술에 대한 M&A 수요 증가 ▪ [물류센터 성장 지속] 원자재 값 상승 및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및 PF 시장 어려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은 여전. 다만, 기존 물건 M&A는 다소 정체분위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 자산매각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추구 ▪ [자동화 관련 투자 가속화]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제조업은 자동화에 관련 투자의 지가 더 강해질 것.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동화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자동화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로봇·AI·스마트 공장 관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 증가 기대 ▪ [ESG 관심 증가] ESG 부각에 따라 탄소 절감 기술, 리사이클링 기술에 대한 관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수주 증가] 선박 부문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선박 해체 및 신규 선박 건조 증가 전망 ▪ [친환경 선박 기술 투자] 친환경 선박 건조를 위해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적 역량(숙련된 노동력 포함) 요구되며,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 지속 ▪ [디지털 관련 투자 증가] 선박 디지털화에 따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M&A 증가 예상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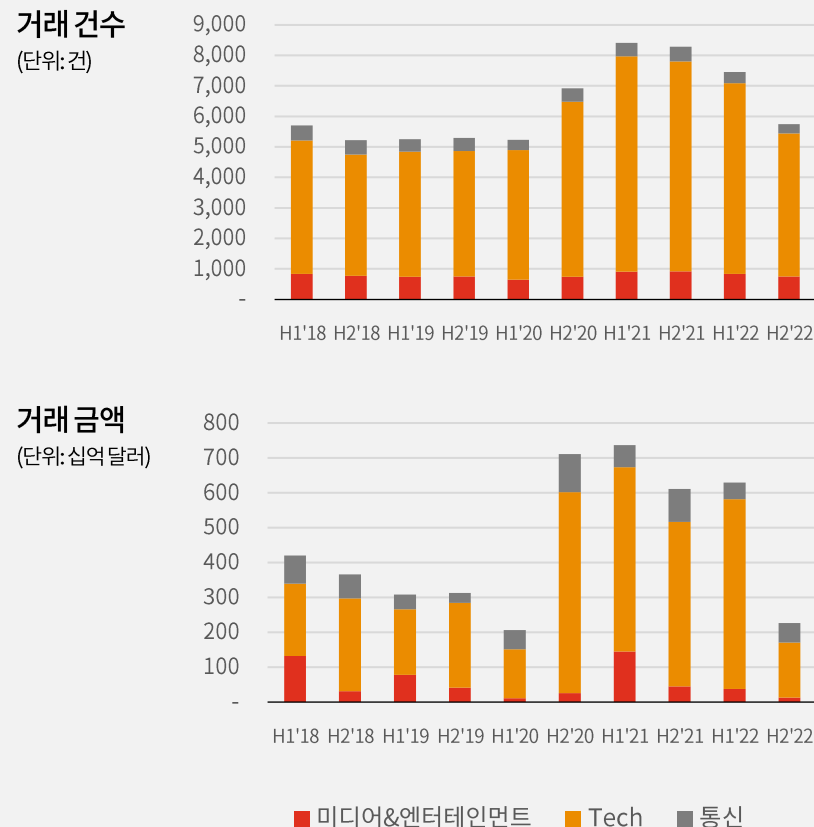
IT·통신 & 미디어



[IT·통신&미디어] 2022 M&A Trend: Global

- '22년 TMT (IT·통신&미디어)산업 M&A 거래 건수는 13,193건(-21% YoY), 거래 금액은 8,560억 달러(-37% YoY)를 기록.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이나,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 대비로는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23%, 22% 높은 수치를 기록
- TMT부문이 '22년 글로벌 M&A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3년 연속 M&A 1위 업종 유지.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및 '합병심사 수수료 현대화법'을 입법화('21년)함에 따라,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유망테크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도 M&A 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이로 인해 '22년은 기저효과로 인해 인수 합병이 더욱 저조
- '22년 하반기로 갈수록 M&A가 부진한 가운데, 섹터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ech 중심으로 투자가 위축(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전년비 22%, 30% 감소). 다만, Tech는 '22년 투자감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 '18~'19년 거래 금액 대비 55% 증가한 상황. 이는 COVID-19 이후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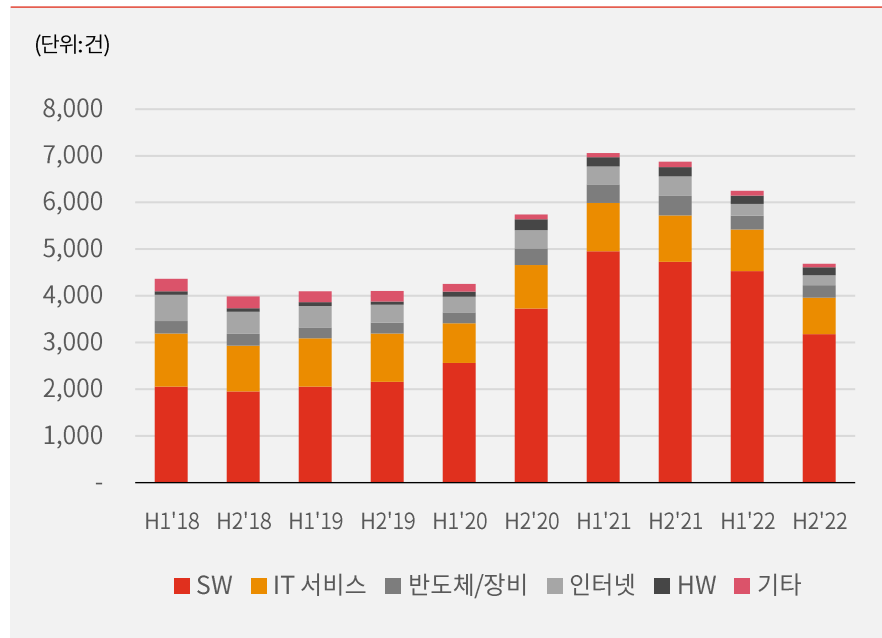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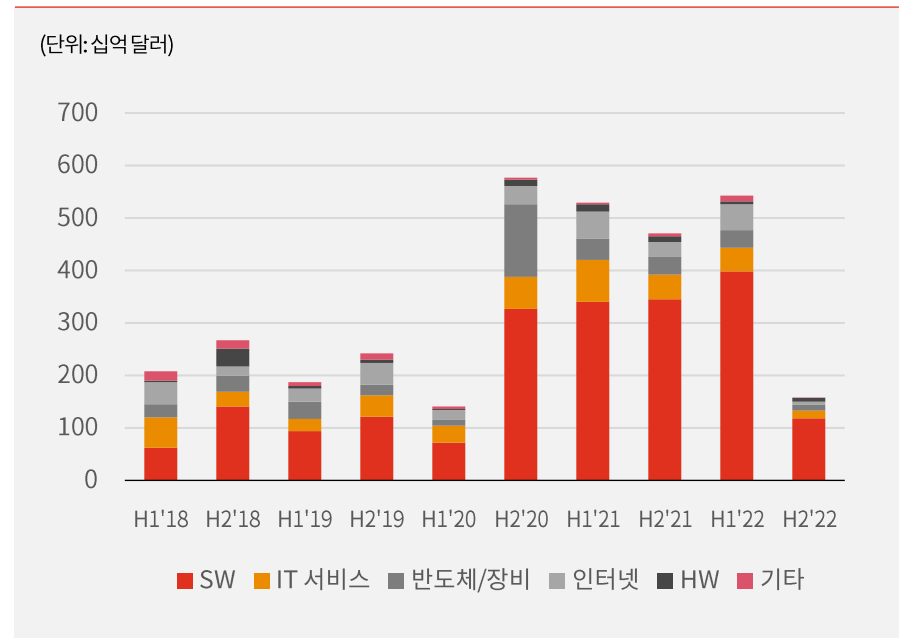
[IT·통신&미디어] 2022 M&A Trend: Global - Tech

- Tech 섹터 내 M&A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2년 기준 Tech 섹터 내 거래 건수의 71%, 거래 금액의 73%)
- 팬데믹 이후 Tech 부문 M&A의 성장을 소프트웨어가 주도. (평균 거래 금액 '18~'19년: 2,090억 달러 → '20~'22년 5,330억 달러로 160% 증가). '22년 하반기부터 Tech 전 영역에서 M&A가 감소하는 가운데, 금액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부문의 거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IT·통신&미디어산업: Tech 섹터 내 M&A 거래 건수_Global



IT·통신&미디어산업: 소프트웨어 M&A 거래 금액_Global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2 M&A Trend: Global Top 10 deals

- '22년 최대 M&A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건(756억 달러)이며, 이는 IT 업계 사상 최고액의 M&A로 꼽힘
- 상위 10건의 거래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섹터 측면에서는 테크놀로지,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Top 10 global TMT deals, 2022

	Target	Buyer	Deal type	Sector	Deal size (US\$bn)
1	 Activision Blizzard Inc	 Microsoft Corp	Corporate	 Software	75.6 
2	 VMware Inc	 Broadcom Inc	Corporate	 Software	68.1 
3	 Twitter Inc	 X Holdings I Inc	PE	 Internet	41.3 
4	 Figma Inc	 Adobe Inc	Corporate	 Software	18.8 
5	 Citrix Systems Inc	 Picard Parent Inc	PE	 Software	13.6 
6	 Black Knight Inc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Corporate	 Software	13.3 
7	 Zynga Inc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Corporate	 Software	12.4 
8	 Switch Inc	 DigitalBridge and IFM Investors	Corporate	 IT Services	11 
9	 Deutsche Telekom AG-Tower Business	 Brookfield Asset Mgt and DigitalBridge	PE	 Telecommunications	10.8 
10	 Anaplan Inc	 Alpine Parent LLC	Corporate	 Software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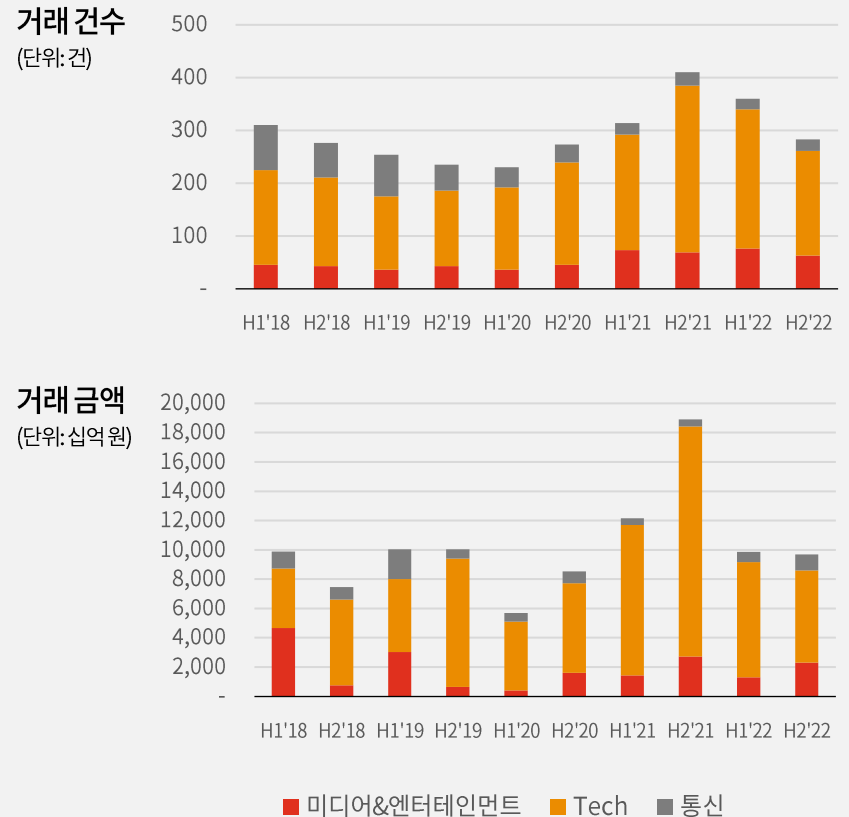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Technology  Media & Entertainment  Telecom

[IT·통신&미디어] 2022 M&A Trend: 국내

- '22년 국내 TMT 부문 M&A 거래 건수는 643건(-11% YoY), 거래 금액은 19조 5천억 원(-37% YoY) 기록.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이나, COVID-19 이전인 '18~'19년 평균 대비로는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20%, 4% 높은 수치를 기록
- TMT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ech섹터의 '22년 거래 건수와 금액은 462건, 14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 46% 감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어 투자 심리가 축소된 것이 역성장의 가장 큰 요인. 또한, '21년 기저효과 (넷마블이 홍콩의 소셜카지노게임사 스피엑스를 약 2조5,000억 원에 인수)로 인해, Tech 부문의 역성장이 더욱 크게 나타남
- 전반적인 M&A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통신 섹터의 경우 전년 대비 거래 금액이 89% 증가했는데, 이는 신한은행, 현대차그룹 등이 데이터 경쟁력 강화·커넥티브 관련 기술 선점 등을 위해 통신기업(KT)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진행했기 때문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Sources: Refinitiv,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3 M&A Outlook: Global

- 기술부문 역량 개선을 위해 M&A가 지속될 것이며, 현금을 보유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지닌 기업들이 인수 기회를 가질 것
-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규모보다 지속적인 수익성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예. SaaS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상승
- 빅테크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ESG 등과 관련된 규제 강화 및 변동성을 고려한 M&A 전략 수립이 요구됨

2023 M&A Hotspots

1 소프트웨어

- '23년에도 Tech 섹터내 상당 비중을 차지할 전망
- 특히 PE 투자가 M&A 규모를 견인할 것
- 벤더들의 역량 확보, 신시장 진출을 위한 M&A 기대

2 통신업계

- 통신사들의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CAPEX 및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지속
- TowerCo, IoT, 데이터센터 중심의 M&A 전망

3 메타버스

- 향후 고객 경험 및 커머스 향상에 기여할 전망
- 자본력을 지닌 기업들은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M&A 추진 예상

4 비디오게임

- 관련 M&A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예상
- 반도체, 메타버스, SW 기술의 개발로 비디오게임 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 상승 전망

섹터별 2023 M&A 트렌드

테크놀로지

- [소프트웨어] 테크 섹터 M&A를 지속 견인할 전망이며, PE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
- [IT 서비스] 사이버보안, DevOps, SW 개발, 디지털 전환, 로우코드(low code)가 '23년 주요 M&A 테마로 떠오를 것이며, 인력 부족 이슈로 인해 핵심 IT 분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자 할 것
- [반도체] 타이이트한 규제 환경으로 '23년 M&A 규모는 다소 위축; Cross-border 메가딜 감소, 중국의 Outbound 투자(특히 미국, 유럽) 제한 등
- [인터넷] 경기부진으로 인한 광고수익 감소, 구동자 위축 등으로 M&A 축소 전망

미디어

- [Live 스포츠] 스포츠 gambling, 데이터 분석, 라이브 콘텐츠 권리 등에 힘입어 M&A 지속될 것
- [영화] 팬데믹은 영화 배급 방식, 생산 파이프라인 등을 바꾸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M&A 환경을 맞이할 전망
- [광고] 애드테크(ad-tech), 고객 분석 등 관련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M&A 추진 전망

통신

- 모바일 네트워크, 광섬유, TowerCo 중심으로 역량 확보 및 규모 증대를 위한 합병 지속
- 비핵심 자산 및 유형자산 부문 스핀아웃 또는 매각으로 현금 확보
- 고수익 흐름 창출을 위한 M&A 추진(특히 데이터 분석,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IT·통신&미디어] 2023 M&A Outlook: **국내**

-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나, 기업의 성장 전략에 중요한 디지털 전환(DX), 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기반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미래 기술 인수를 위한 M&A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디지털기반 경험으로의 장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 관련 기술(증강·가상현실, NFT), 통신망 확장과 데이터센터 증설 분야에 대한 관심 지속 예상

2023년 국내 IT·통신&미디어 산업 M&A 주요 테마

Tech	미디어 · 엔터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 감소. 이에 따라 Tech 분야는 전반적인 조정기에 진입했으며, 설비 관련 신규 투자에 보수적일 전망.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필수 부품·원료 관련한 M&A는 활발히 진행 ▪ [소프트웨어: 유망기술에 대한 관심 지속] 경기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속. AI·빅데이터·클라우드·메타버스 등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음. 낮아진 Valuation을 기회로 삼아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M&A가 활발히 일어날 것 ▪ [플랫폼: 콘텐츠 및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확장 지속. 국내뿐 아니라 해외진출등을 통해 영역 확장 지속되며, 해외 플랫폼 업체 인수 뿐 아니라, 콘텐츠·쇼핑·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의 회사들 대상으로 M&A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수익창출을 위한 국내 OTT간 합종연횡]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OTT의 국내 시장 공략이 강화됨에 따라, 수익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OTT간 합종연횡이 강화될 것 ▪ [엔터: 업종 내 활발한 M&A 지속, 콘텐츠 확보를 위한 플랫폼업체들의 진출 증가] K-POP, K-드라마 등 콘텐츠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지속. 경기둔화로 인해 실적이 저하된 엔터 기업들이 매물화되면서, 엔터 업종 내 M&A가 활발히 진행될 것.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엔터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전망 ▪ [광고: AD-Tech 투자] AD-Tech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될 것. 특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투자] 5G, 데이터센터, AI 등에 대한 투자 지속 ▪ [꾸준한 Cash-flow를 바탕으로 M&A 시장 주도] 통신업은 꾸준한 Cash-Flow를 바탕으로 풍부한 현금 확보하고 있으며, 투자 유망기업들의 Valuation이 낮아진 '23년은 신사업 투자에 적기 ▪ [타 업종과의 전략적 제휴 증가] 통신기업이 단독으로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디지털화·커넥티드 역량 확보를 위해 통신사와 제휴를 맺는 기업 꾸준할 것으로 판단

Business Contacts

Deals Leader

박대준 Partner
dae-joon.park@pwc.com

Deals Deputy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소비재

장병국 Partner
byeong-guk.chang@pwc.com

헬스케어

윤창범 Partner
chang-beom.yoon@pwc.com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최창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한정탁 Partner
jungtak.han@pwc.com

홍진오 Partner
jino.hong@pwc.com

박치홍 Partner
chihong.park@pwc.com

금융

홍영관 Partner
young-kwan.hong@pwc.com

김기은 Partner
gee-eun.kim@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Partner
chang-dae.choi@pwc.com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산업재 및 자동차

김재운 Partner
jae-un.kim@pwc.com

홍석형 Partner
seok-hyoung.hong@pwc.com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Deals Platform

탁정수 Partner/ Tax
Deals Platform Leader
jeongsoo.tak@pwc.com

정경수 Partner/ M&A센터
kyungsoo.jung@pwc.com

성낙필 Partner/ Private Equity
nack-pil.sung@pwc.com

김용현 Partner/ Value Creation
yonghyun.k.kim@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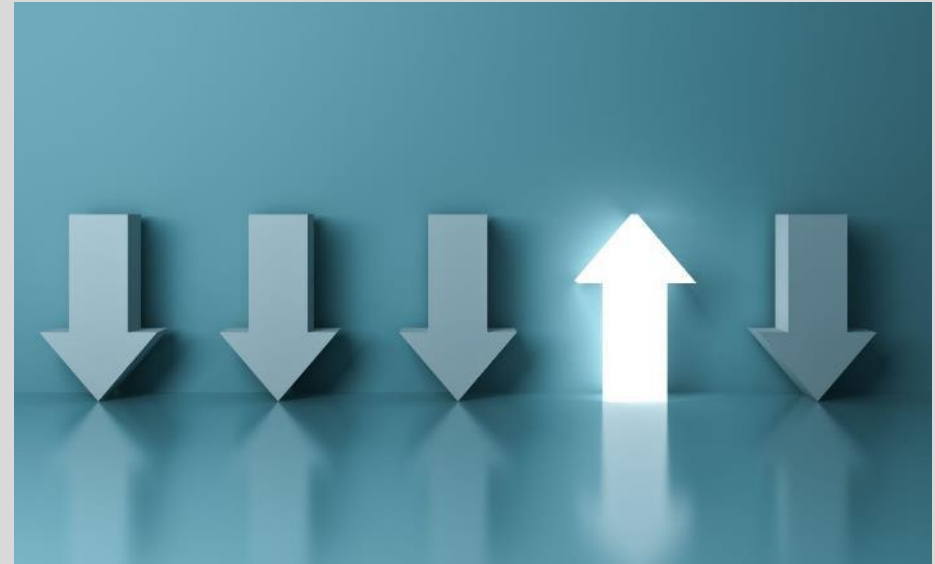
이은영 Director
eunyoung.lee@pwc.com

오선주 Senior Manager
sunjoo.oh@pwc.com

강서은 Manager
seo Eun.kang@pwc.com

최형원 Associate
hyungwon.choi@pwc.com

신서윤 Assistant-Associate
seoyoon.shin@pwc.com



www.samil.com

S/N: 2303W-RP-011

© 2023 PwC Kore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